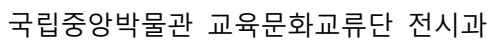


전시장 설명 원고



전시를 열며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교 55 주년을 맞이하여 사우디관광국가유산위원회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전 '아라비아의 길'을 개최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을 비롯한 주요 박물관들의 대표적 소장품 460 여건을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선사시대부터 20세기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조명합니다. 아라비아는 중근동 고대 문명의 교차로이며 이슬람교의 발상지로서 세계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아프리카를 벗어난 인류가 첫 발을 내딛은 이래, 아라비아는 메소포타미아를 비롯하여 이집트 그리스, 로마 등 이웃하는 문명권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다양한 문화를 꽃 피웠습니다.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번성했던 고대 문명의 흔적들은 아라비아 곳곳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한 이래 아라비아의 메카와 메디나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하는 성지입니다. 최근 40 여 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굴 성과에 바탕을 둔 이번 특별전은 이처럼 유구한 역사와 다양한 문화를 가진 아라비아를 재발견하는 매혹적인 여행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Opening Special Exhibition

In celebration of the 55th anniversary of diplomatic ti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Saudi Arabia,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n association with the Saudi Commission for Tourism and National Heritage, presents *Roads of Arabia*, a special exhibition that provides a rare glimpse into the history and culture of Saudi Arabia. Featuring about 460 treasures from the collections of the major museums of Saudi Arabia for the first time in South Korea, this exhibition sheds light on the rich history from prehistoric and ancient times to the twentieth century. As the crossroads of the ancient civilizations of the Middle and Near East and also as the cradle of Islam, Arabia holds special significance in world history. After humans began migrating out of Africa, Arabia emerged as a key trading partner for neighboring civilizations, including Mesopotamia, Egypt, Greece, and Rome, leading to the blooming of various cultures. Since the prophet Muhammad's founding of the religion, Islam's two holiest cities, Mecca and Medina, have remained the destinations of Islamic pilgrimage. Based on archaeological discoveries from the past four decades, this special exhibition offers a fascinating journey to rediscover the historical and cultural splendor of Arabia.

بمناسبة افتتاح المعرض الخاص

يتشرف المتحف المركزي الوطني بأن ينظم المعرض الخاص الذي يقدم تاريخ وثقافة المملكة العربية السعودية، وذلك بالتعاون مع الهيئة العامة للسياحة والتراث الوطني السعودية، بمناسبة الذكرى الـ 55 على إقامة العلاقات الدبلوماسية بين جمهورية كوريا والمملكة العربية السعودية. وسيستعرض هذا المعرض حوالي 460 مادة من المواد الثقافية المهمة التي تحتفظ بها معظم المتاحف الرئيسية السعودية، وفي مقدمتها المتحف المركزي السعودي، لأول مرة في البلاد، لإلقاء الضوء بشكل شامل على تاريخ وثقافة المملكة منذ عصر ما قبل التاريخ وحتى القرن العشرين.

كما تعرفون فإن شبه الجزيرة العربية تعد منطقة تقاطع للحضارات القديمة في الشرقين الأوسط والأدنى، كما تمثل منبعاً لدين الإسلام، ومن ثم تكتسب أهمية كبيرة في التاريخ العالمي. ومنذ أن وطأت أقدام الـ "هومو سابينز" أو الإنسان الحديث، الذي خرج من إفريقيا قبل حوالي 100 ألف سنة في العصر الحجري القديم، أرض شبه الجزيرة العربية لأول مرة، ظلت شبه الجزيرة العربية تشهد ازدهاراً في مختلف الثقافات من خلال التبادلات النشطة مع حضارة بلاد ما بين النهرين وغيرها من الحضارات المجاورة لها بما فيها الفارسية والمصرية واليونانية والرومية. ولا تزال آثار المدن القديمة التي كانت مزدهرة حول الواحات قائمة في مختلف أرجاء شبه الجزيرة العربية. ومنذ تأسيس النبي محمد دين الإسلام، تعد مكة والمدينة في شبه الجزيرة العربية من أهم الأماكن المقدسة التي يزورها الكثير من المسلمون للحج حتى الآن. وسيتيح هذا المعرض الخاص فرصة ثمينة لإعادة اكتشاف شبه الجزيرة العربية باعتبارها طريقاً للثقافات المتنوعة والحضارة المتميزة.

사람 모양의 석상

Anthropomorphic stele

까르얏 알카파, 하일 인근

기원전 4 천년기 | 석회석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996

아라비아에서 사람 모양의 석상은 기원전 4 천년기 무렵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종교나 장례의식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석상은 아라비아 북부 및 남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직사각형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표현으로 인체의 특징을 포착한 선사시대 조각가의 예술적 감각이 돋보입니다.

These slabs of standing stone were probably associated with religious or burial practices. They are among the earliest known objects from the Arabian Peninsula. Dating to the fourth millennium BCE, these three steles are quite distinct in their clothing and appearance, which may represent village or tribal differences.

사람 모양의 석상

Anthropomorphic stele

올라, 마다인 살레 인근

기원전 4 천년기 | 사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997

이 석상은 몸체의 특징 보다 다양한 장신구들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표정 없는 사다리꼴 형태의 머리 아래에는 한 줄의 선으로 목걸이가 표현되었고, 팔이 없는 몸통에는 뾰족한 무기를 매단 띠와 허리띠가 뒷면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단검이 표현된 사람 모양의 석상은 청동기시대로 접어든 이 후에는 유럽과 중동 전역에서 두루 나타납니다.

사람 모양의 석상

Anthropomorphic stele

까르얏 알카파, 하일 인근

기원전 4 천년기 | 사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998

이 석상은 비록 상반신만 표현되어 있으나, 신체의 특징은 매우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둥근 얼굴에는 귀가 달려 있으며, 비대칭적인 눈과 조그만 입술은 인물의 감정까지 느껴지게 합니다. 몸통은 직사각형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팔과 손으로 몸을 감싸 안아 자연스럽게 신체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의 선사시대

아라비아에 인류가 정착하기 시작한 시기는 130 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라비아 북부의 슈와이히티야와 남서부의 비르 히마에서 출토된 석기들은 아프리카에서 탄생한 인류가 아라비아를 거쳐 전 세계로 확장해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약 1 만년 전 무렵의 아라비아는 수목이 무성하고 깊은 호수, 비옥한 습지, 풍부한 야생자원을 보유한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의 땅이었습니다. '초록의 아라비아'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는 지중해 연안의 근동 지역에서 사람들이 건너와 다양한 도구와 무기를 제작했습니다. 기원전 5 천년 경부터 기후가 다시 급격히 건조해지면서 사람들은 다시 이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화살촉과 돌날 같은 신석기시대 도구들은 아라비아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Prehistory of Arabia

The earliest evidence of human settlement on the Arabian Peninsula consists of stone tools that date to around 1.3 million years ago. These objects were found at Shuwayhitiyah in the north and at Bir Hima in southwestern Arabia. Around 10,000 years ago, the Peninsula's green vegetation, deep lakes, fertile marshes, and plentiful wildlife attracted hunters, gatherers, and wandering shepherds from the eastern Mediterranean region. By 5000 BCE, when the climate became increasingly dry once again, people returned to a more mobile way of life. Neolithic tools, including arrowheads and blades have been found throughout the Arabian Peninsula.

찍개

Chopper

슈와이히티야, 조우프

올도완기(180 만~100 만 년 전) | 규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3, 10/19, 12/2

아라비아의 최초 석기는 북부 지방의 슈와이히티야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찍개와 긁개 등 여러 석기들은 탄자니아 올두바이 협곡에서 나온 석기의 제작 기법과 일치합니다. 이는 아라비아에 올도완기(260 만 년 전~170 만 년 전)에 해당하는 전기 구석기문화가 유입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줍니다.

찍개

Chopper

파티마 계곡, 메카

아슐리안기(100 만~10 만 년 전) | 안산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4/8

양면석기

Biface

사파까, 리야드

아슐리안기(100 만~10 만 년 전) | 안산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490, 493/1, 502/2

양면석기

Biface

동부 주州

아슐리안기(100 만~10 만 년 전) | 부싯돌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306/2

굵개

Scraper

동부 주州

아슐리안기(100 만~10 만 년 전) | 부싯돌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303/3

뚜르개

Borer

와디 계곡, 메카

무스테리안기(10 만~2 만 5 천 년 전) | 안산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08/6

긁개

Scraper

비르 히마, 나즈란

무스테리안기(10 만~2 만 5 천 년 전) | 안산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21/1, 115/1

이 석기는 10 만 년 전에서 2 만 5 천 년 전의 중기 구석기 시대에 호모사피엔스가 아라비아 반도 남쪽 지역에 살았음을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양면석기

Biface

비르 히마, 나즈란

무스테리안기(10 만~2 만 5 천 년 전) | 안산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13/1, 164/1, 648

돌날

Backed Blade

비르 히마, 나즈란

무스테리안기(10 만~2 만 5 천 년 전) | 안산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04/3, 175/1

화살촉

Arrowheads

투마마, 리야드

신석기(기원전 1만~4천 년) | 플린트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203/1-3

양면석기

Biface

동부 주州

신석기(기원전 1만~4천 년) | 플린트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204/1-2

기원전 8천 년~6천 년 사이, 아라비아는 사바나에 가까운 초원 지대였습니다. 따라서 양, 소 떼를 몰던 레반트 (동부 지중해 연안 지역)의 유목민들은 아라비아 북동부로 이동해 정착했습니다. 이 지역의 취락지에서 발굴된 석기들은 돌을 다듬고 떼어내는 장식에서 레반트 남쪽에서 출토된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긁개

Scraper on flake

동부 주州

신석기(기원전 1만~4천년) | 플린트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202

양면석기

Bifaces

중부 주州

신석기(기원전 1 만~4 천 년) | 플린트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206/1-3

화살촉

Arrowheads

중부 주州

신석기(기원전 1 만~4 천 년) | 플린트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207/1-6, 435-7h

화살촉

Arrowheads

동부 주州

신석기(기원전 1만~4천 년) | 플린트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201/1-3, 1205/1-3

아라비아 북동부 지역 신석기유적에서 화살촉이 다량으로 나온 것으로 보아 사냥이 공동체 생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날 화살촉은 기원전 7천 년 경에 레반트 남쪽에서 만들어진 화살촉과 유사합니다. 이는 아라비아 동부의 신석기시대가 레반트에서 기원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좀돌날

Bladelets

동부 주州

신석기(기원전 1만~4천년) | 플린트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200/1-11

여성상

Stone female statue

마가르

신석기(기원전 1만~4천 년) | 사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M/29

여성상

Stone female statue

마가르

신석기(기원전 1만~4천년) | 사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M/28

여성의 모습을 매우 단순한 형태로 양식화하여 표현한 석상입니다. 표정과 신체 특징이 살아있는 4천년 전의 남성상과는 대비됩니다.

화살촉

Arrowhead

마가르

기원전 8810 년경 | 플린트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H1324, H41281, H51281,
H61281, H91281

긁개

Scraper

마가르

기원전 8810 년경 | 플린트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H1288, H21283, H1/1284,
H3/1284, H4/1283

새(독수리 추정)의 머리

Head of a bird(possibly an eagle)

마가르

기원전 8810 년경 | 돌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3181

염소의 머리

Head of a goat

마가르

기원전 8810 년경 | 돌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3177

사냥개

Head and body of a desert hunting dog

마가르

기원전 8110 년경 | 돌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3176

마가르 유적의 바위 그림에 개를 이용해 사냥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 사냥개의 모습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의 모습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오래전부터 사육되었던 살루키 개와 비슷합니다.

양의 머리

Head of a sheep

마가르

기원전 8110 년경 | 돌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3184

타조의 머리

Head of an ostrich

마가르

기원전 8110 년경 | 돌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3192

말

Part of a horse

마가르

기원전 8110 년경 | 돌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3172

머리와 몸통만 남아 있는 이 조각은 마가르 지역에서 발견되는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목의 길이나 머리의 형태로 볼 때 순수 아라비아 혈통의 말과 비슷합니다. 입 주변에 굴레 형태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이는 당시 사람들이 말을 가축으로 길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돌칼

Dagger

마가르

기원전 8110 년경 | 돌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3297

이 돌칼의 형태는 오늘날 아라비아에서 사용하는 의례용 단검과 비슷합니다. 몸에 단검을 차는 것은 아라비아의 대표적인 문화 중의 하나로, 기원전 9000 년 무렵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오랜 관습입니다.

가락바퀴紡錘車

Scraper

마가르

기원전 8110 년경 | 플린트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H3/1284

그릇 조각

Pot fragments

마가르

기원전 8810 년경 | 동석凍石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3301, 3362

마가르 문명

2010 년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서쪽 마가르에서 낙타에게 먹
일 물을 얻기 위해 우물을 파던 도중 돌로 만든 칼, 가락바
퀴, 갈판, 화살촉 등 신석기시대 도구들이 다량으로 출토되
었습니다. 그 중에는 말, 개, 염소와 같은 동물 모양으로 된
것도 있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출토품들
은 기원전 8110 년에 제작된 것으로 밝혀져 세계 고고학계
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 사육의 역사는 중앙아시
아에서 기원전 3500 년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
발견으로 아라비아에서 더 오래 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이 증
명되었습니다. 또한 돌칼을 차거나 개를 이용해 동물을 사
냥하는 아라비아의 풍습이 오랜 역사를 지닌 것으로 밝혀졌
습니다.

Al-Magar Civilization

In 2010 an important discovery was made in the southwestern region of Saudi Arabia. While digging for water at al-Magar, a camel herder discovered a number of Neolithic tools, including stone animals. Based on the radiocarbon dating method, archaeologists believe that the animal forms may date back to 8110 BCE. The discovery is particularly significant in relation to the history of horse domestication. Until now, it was believed that horses were first domesticated around 3500 BCE in Central Asia. The date of the objects from al-Magar proves that horses may have been tamed far earlier than previously thought. It also prove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Arab culture, including equestrianism, falconry, hunting using canines and carrying the Arabic dagger, were already present in al-Magar culture as early as 9000 BCE.

갈판

Stone quern

마가르

기원전 8810 년경 | 동석凍石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3197

마가르 유적에서는 화살촉 외에도 굽개, 절굿공이, 가락바퀴, 기하학 무늬로 장식된 동석凍石 향아리들이 나와 당시 사람들의 석기 제작 기술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물 이빨과 뼈

Small fossils of animal teeth and bones

타이마

신석기(기원전 1 만~4 천 년)

타이마박물관 소장

Tayma Museum, 354-363

코끼리 뼈

Elephant shoulder

타이마

신석기(기원전 1 만~4 천 년)

타이마박물관 소장

Tayma Museum, 353

아라비아 반도는 한때 코끼리가 서식할 정도로 초목이 풍부한 초원 지역이었습니다. 최근 나푸드에서 발견된 동물 화석은 이러한 기후 조건을 유추할 수 있게 합니다. 코끼리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표범, 영양, 야생 당나귀, 늑대 등 지금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볼 수 없는 동물 화석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고고학

아랍의 시인들은 아라비아를 여행한 첫 탐험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시 속에는 폐허가 된 고대 유적의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유럽의 탐험가들도 아라비아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독일의 카르스텐 니부어와 영국의 찰스 다우티 같은 일부 탐험가들은 아라비아의 역사와 고고학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 남겼습니다. 20 세기 초, 해리 존 필비(압둘라 필비)는 최초로 남서부 아라비아 지역에 대한 조사를 기록하였습니다. 1960년대부터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라비아 전역에 대한 대규모 발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는 꾸준히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아라비아 고고학에 대한 이해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이 전시는 최근 10년 동안의 발굴을 포함하여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발굴 성과가 담긴 사우디아라비아 고고학의 현재입니다.

Archaeology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Arab poets were perhaps the first explorers of the peninsula's past. Their verses often describe ruins and ancient monuments. Some explorers, such as Carsten Niebuhr and Charles Doughty, left invaluable written and visual sources on the history and archaeology of the region.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Harry St. John Philby (Abdullah Philby) was one of the first to record the southwestern region of Arabia. Starting from the 1960s, the Kingdom of Saudi Arabia began an extensive archaeological program across the peninsula. Such projects have greatly expanded in recent decades, but archae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Arabian Peninsula is still in its infancy. Many of the objects in this exhibition were discovered only in the last decade, and some were excavated just a few years ago.

오아시스에 핀 문명 : 딜문, 타루트 섬 그리고 게라

아라비아의 동쪽, 아라비아 만 연안의 타루트 섬은 대추야자 나무가 무성한 오아시스로 신석기시대부터 이곳에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은 기원전 4 천년기 말부터 3 천년기 초까지 고대 '딜문'문명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타루트 섬뿐만 아니라, 다란, 도사리아, 아브카이그 등 동부 연안 지역의 다양한 출토품들은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 인더스 문명과의 활발했던 교역을 보여 줍니다. 고대 도시 '게라'로 추정되는 타즈는 기원전 3 세기부터 1 세기까지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Civilization built around the Oasis : Dilmun, Tarut Island, Gerrha

Tarut Island is one of the largest date palm oases in northeastern Arabia. Tarut was important during this period as it was one of the main centers of the Dilmun civilization, also mentioned in Mesopotamian texts. Archaeologists believe that between the late fourth millennium and the beginning of the third millennium BCE, the Dilmun people lived on the island of Tarut and surrounding inland areas. According to ancient sources, Thaj, believed to be the place where ancient Gerrha once was, said to have been under the Greek influence from the 3rd century BCE to the 1st century CE.

남성상

Statue

타루트

기원전 3 천년기 중엽 | 석회석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000

1966 년 타루트 섬에 소재한 무덤을 발굴하던 도중 출토된 석상입니다. 이 남성상처럼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자세와 허리띠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은 기원전 3 천년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조각상이나 인장에 새겨진 그림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석상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교역이 증가하던 기원전 3 천년기 중엽에 타루트 섬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During construction on the island of Tarut in 1966, workmen found this male figure. The statue is similar to some Mesopotamian figures that date from the third millennium BCE. His only item of clothing is a waistband in the same style as those worn by heroes on Mesopotamian seal stamps. The large size of the figure is highly unusual and may have been created locally on Tarut Island.

딜문

오랫동안 메소포타미아의 기록에서 '바다 건너 천국'으로 묘사되었던 '딜문'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아라비아 동쪽 해안 지역에서 딜문의 존재를 밝혀주는 고고학적 발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날 바레인 섬이 그 중심지였습니다. 딜문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와 인더스 문명 사이의 해상 교역로 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기원전 1700년 무렵에 매우 번성했습니다. 금이나 은, 진주, 대추야자와 같은 지역 생산품을 수출하고 목재나 구리를 수입하여 재수출 하기도 하여 부를 축적해 천국으로 여겨졌습니다.

Dilmun

The land of Dilmun is described as "Paradise across the sea" in some of the earliest Mesopotamian written sources. Its location had remained a mystery until archaeologists discovered evidence of its existence along the eastern coast of Arabia in 1960s. The survey identified that most settlements were located on the island of Bahrain. Thanks to its location along the maritime shipping trade route between India and Mesopotamia, the city prospered during the first quarter of the second millennium BCE. Dilmun people amassed great riches through exporting local products such as gold, pearl, and date palm and trading in timber and copper which were not local to the region.

우바이드 토기

Ubaid pottery

쿠르사니아

우바이드 3기(기원전 5300~4700 년경) | 토기에 채색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137, 1943, 3/1141, 20/1141, 8/1144, 8/1141

아라비아 북동부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토기들이 대량으로 출토되었습니다. 우바이드 'ubaid' 토기라 불리는 이 토기는 기원전 7 천년기 중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되어 3 천 년 넘게 생산되었습니다. 잘 정제된 녹색 점토로 만들어 졌고, 진한 갈색으로 무늬가 그려져 있는 이 토기는 당시 아라비아 지역에서 만든 것보다 정교하고 섬세합니다. 우바이드 문화는 기원전 5300~4700 년 무렵에 아라비아 북동쪽으로 확장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이후 수천 년 동안 지속된 아라비아와 메소포타미아의 교역 관계의 시작을 알립니다.

The unique type of painted earthenware, known as Ubaid pottery, first appeared in Mesopotamia around 9,000 years ago. Drawn to better fishing grounds in the northeast, Mesopotamians probably migrated to the east coast of Arabia and introduced pottery production. Their move also developed trade relationships between northeastern Arabia and Mesopotamia that lasted thousands of years.

그릇

Vessel

아인 앓사이

기원전 5 천년기 | 토기

담맘박물관 소장

Dammam Museum, 4648

거친 점토로 만든 이 그릇은 아라비아 만 연안 지역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그릇 안쪽에 붙어있는 따개비들은 기원전 5 천년기 중반에 아라비아 만의 해수면이 지금보다 높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깨진 부분은 역청으로 메꿔 놓았는데, 이 시기 역청은 우바이드 채색 토기와 더불어 메소포타미아의 주요 수입품이었습니다.

Made from coarser clay, this conical vessel is characteristic of local ceramic pottery production found on Tarut.

돌날

Blade

도사리아

기원전 5 천년기 | 흑요석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2/438H

도사리아 지역에서 출토된 흑요석은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수입한 것입니다. 기원전 6 천 년 후반에서 5 천 년 사이에 아라비아 반도는 터키 지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교역 네트워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항아리

Jar

아브까이크

기원전 3000~2250 년 | 토기에 채색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199

양식화된 염소가 그려져 있는 이 토기는 이란 남동부 지역에서 수입한 것입니다. 비슷한 형태의 토기들이 발루 치스탄의 밤푸르 (Bampur), 테페 야흐야(Tepe Yahya)에서도 확인됩니다.

채색 항아리

Cylindrical burial jar

다란

기원전 2000~1800 년 | 토기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96

이 커다란 용기는 장례 의식 때 사용되는 술과 같은 액체류를 저장했습니다. 이러한 토기들은 오만 지역이나 남부 메소포타미아인 우르(Ur)와 라르사(Larsa)에서도 발견됩니다.

붉은 간 토기

Vase with slip

다란

기원전 2000~1800 년 | 토기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81

무덤에서 주로 발견되는 이 토기는 표면에 산화철을 바르고 문질러서 광택을 냈습니다. 이러한 붉은 간 토기 류는 메소포타미아와 아라비아 북동부 지역에서 기원전 2 천년기 중엽까지 사용되었습니다.

항아리

Jar

타루트, 루파야

기원전 3 천년기 전반 | 토기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144

기름이나 곡식을 운반할 때 사용하던 저장 용기로 메소포타미아 초기 왕조시대의 특징적인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Jars

아브까이크, 샤브카 함맘

기원전 3 천년기 전반 | 토기

담맘박물관 소장

Dammam Museum, 1190, 1192, 3536

이 항아리들은 이라크의 우르(Ur)와 카파예(Khafaje) 무덤에서 나온 그릇과 유사합니다. 이들 또한 아라비아 북동부 지역과 메소포타미아와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This large jar is one of several objects discovered in a tomb at Tarut. Similar vessels from cemeteries at Ur and Khafaje in Iraq highlight the close relations between northeastern Arabia and Mesopotamia

채색사발

Bowl

다란

기원전 2200~1800 년 | 토기에 채색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210

채색 사발

Bowl

다란

기원전 3 천년기 | 토기에 채색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82

채색 병

Funerary vase

다란 Tomb B29

기원전 2200~1800 년 | 토기에 채색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3109

채색 항아리

Globular jar

다란 Tomb B25

기원전 2100 년경 | 토기에 채색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946

뱀 무늬 그릇

Conical vessel with entwined snakes

타루트 추정

기원전 3 천년기 | 녹니석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3170

녹니석으로 만든 그릇은 고대 중근동 전지역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타루트 섬에서 발굴된 녹니석 그릇은 대부분 타루트에서 제작되었으나, 일부는 페르시아 남동부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이란 남부 지역에서 생산된 녹니석 그릇들은 아라비아에서 매우 귀한 사치품이었습니다. 서로 몸이 꼬여 있는 뱀의 모습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 문양 중 하나입니다.

Recent archaeological discoveries at Tarut include a large number of containers and fragments made of chlorite, a type of silicate mineral. These decorated with vessels have been found throughout the ancient near east. Most of these objects were produced locally, some were probably imported from southeastern Persia. One popular design is a pair of snakes with connected bodies and facing heads.

병

Vase

다란

기원전 1600~1250 년경 | 녹니석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969

병

Decorated vase

타루트

기원전 2650~2550 년경 | 녹니석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75, 1168, 1220

야자나무 무늬 그릇

Cylindrical vessel with palm tree

타루트 추정

기원전 3 천년기 후반 | 녹니석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3171

그릇

Vessel

타루트

기원전 3 천년기 중엽 | 녹니석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247

병 조각

Ceramic vase fragment

타루트

기원전 3 천년기 후반 | 백운모 편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173

그릇 조각

Vessel fragment

타루트

기원전 3 천년기 후반 | 녹니석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250

그릇 조각

Vessel fragment

타루트

기원전 3 천년기 전반 | 녹니석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242

사슴, 사자 꼬리, 독수리 머리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메르 신화에 등장하는 사자 머리를 한 독수리인 안주 (Anzu)를 표현한 것입니다.

건축물이 새겨진 병 조각

Patterned vase with architectural motifs

타루트

기원전 3 천년기 후반 | 녹니석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253

오두막 같은 건물 형태뿐만 아니라 윗가지 엮기(watting) 방식으로 만든 울타리 형태도 새겨져 있습니다.

병

Vase

타루트

기원전 3 천년기 후반 | 녹니석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246

사발

Hemispherical bowl

타루트

기원전 3 천년기 후반 | 녹니석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231

그릇 조각

Vessel fragment

타루트

기원전 3 천년기 후반 | 녹니석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234

뱀 두 마리를 잡고 싸우는 사람의 모습은 이란 남동부나 메소포타미아의 그릇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문양은 고대 중근동에서 자주 등장하는 도상인 야수의 제왕(Master of Beasts) 모티프에서 변형된 것입니다.

그릇 조각

Vessel fragments

타루트

기원전 3 천년기 후반 | 녹니석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2/1255, 1254, 1227, 1240, 3134

남성상

Male figurine

메소포타미아 추정

기원전 3 천년기 | 청금석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177

이 작은 조각상은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되는 값비싼 청금석(Lapis Lazuli)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외투를 덮고 있는 남성의 눈과 긴머리, 수염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조각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식입니다.

This small figure is carved of lapis lazuli, a highly prized semiprecious stone from present-day Afghanistan. The man is wrapped in a cloak. His eyes, long hair, and beard are in the same style as certain statues from Mesopotamia.

인도 보리수나무잎 무늬 항아리

Vase decorated with Indus pipal leaf

타루트

기원전 2200~1800 년 | 토기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164

앞이 넓은 보리수나무잎 무늬는 인더스 계곡의 하라파 지역에서 만든 토기의 특징적 요소로 타루트 섬에서 인더스 문명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잔

Cylindrical vessel

타루트

기원전 4~3 천년기 추정 | 석회석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180

이 잔은 오만 해안가에서 발견되는 매우 희귀한 재료인 화석화된 산호 석회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비슷한 그릇들이 이란의 테페 야흐야(Tepe Yahya)에서 발견되었습니다.

This cup is made of limestone, a type of fossilized coral found along the coast of Oman. Similar vessels have also been discovered in Tepe Yahya in southeastern Persia.

사발

Bowl

타루트

기원전 3 천년기 | 설화 석고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288

설화 석고로 만든 그릇들은 부와 지위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액체류를 저장하는 데 적합하지는 않았지만 기원전 2 천년에서 1 천년대까지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Throughout the ancient Near East, alabaster vessels were considered symbols of wealth and status. However, alabaster is not a suitable material for storing liquids.

사발

Bowl

타루트

기원전 3 천년기 | 설화 석고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997

종 모양 그릇

Bell-shaped vase

타루트

기원전 2550~2350 년경 | 녹니석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2010

사발

Bowl

타루트

기원전 3 천년기 | 동석凍石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3125

접시

Saucer

타루트

기원전 3 천년기 | 녹니석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3121

그릇

Vessel

타루트

기원전 3 천년기 후반 | 녹니석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226

동심원으로 장식된 이 그릇은 오만 반도에서 수입된 것 입니다. 이러한 그릇들은 기원전 3 천년기 후반에 메소포타미아, 이란, 인더스 계곡, 아라비아 만 연안에서 널리 쓰였습니다.

잔

Cup

타루트

기원전 3 천년기 | 동석凍石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3123, 3124

유약 바른 접시

Glazed ceramic dish

타루트

기원전 1 천년기 | 채색도기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M/17

병

Vase

타루트

기원전 6 세기 | 토기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165

딜문 인장

Dilmun seal

다란

기원전 2000 년~1800 년 | 스텔라이트

담맘박물관 소장

Dammam Museum, 4614

스카라브

Scarab

다란 Tomb B2

기원전 2 천년기 추정 | 석회석

담맘박물관 소장

Dammam Museum, 1116

인장

Seal

타루트

기원전 3 천년기 후반 | 테라코타 또는 스텔라이트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2669/3

인장

Gulf seal

타루트

기원전 2200~2000 년경 | 녹니석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182

이 인장은 아라비아 만 연안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입니다. 시기는 기원전 2200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북동부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었습니다. 젖은 진흙이나 왁스에 인장을 찍어서 행정 문서나 서신을 봉인하는 용도로 사용 하거나, 벨트나 목걸이의 장신구로도 이용하였습니다.

Relatively small in size and with a grip, they were mainly decorated with geometric motifs or stylized animals, including bulls, gazelles, and goats. They were worn on the belt or around the neck as an expression of individuality.

게라

기원전 4 세기에 알렉산드로스 3 세가 메소포타미아를 차지한 이후, 그리스 문화의 영향은 아라비아 반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라비아 북동부 지역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의 거주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당시의 보석, 동전, 조각 등 교역품에서 그리스 문화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고대 문헌으로만 알려진 아라비아 북동부의 게라는 메소포타미아, 아나톨리아, 페르시아, 그리스를 비롯하여 인도와 중국과도 교역하며 매우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현재 그 위치는 타즈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리스에서 온 금 세공품이 가득한 왕족 무덤이 이곳에서 발굴되었습니다.

Gerrha

In the 4th century BCE, Alexander the Great conquered Mesopotamia and the Greek culture spread throughout the region as a result. Since no evidence of large Greek settlement has been found in the northeast of Arabia, the Greek influences seem to have come through trade goods such as gold jewelry, coins, and sculptures. According to ancient sources, Gerrha was by far the most rich and important northeastern city during the Greek period. From there, traders controlled the distribution of incense and other materials destined for Mesopotamia, Anatolia, Persia, and Greece, while the city was functioning as a stopping point on the trade routes from India and China to the west. It has been believed that modern-day Thaj is the place where ancient Gerrha was located. Excavations at Thaj, including a royal tomb containing gold and precious stones, indicate that it was a highly developed city.

그리스 어 명문이 있는 석비

Stele with Greek inscription

타루트, 루파야

기원전 3~2 세기 | 석회석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289

이 석비에는 “하빌리 나우마트. 안녕히(Habib'il Nawmat. Greetings)”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동부 아라비아에 발견된 몇 안되는 그리스어 명문 중 하나로 이와 비슷한 묘비가 바레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The inscription on this stone stele reads: “Habib'il Nawmat. Greetings” and is one of the few Greek inscriptions from east Arabia. Others of a similar type can be found in Bahrain.

석상

Steles

타루트

기원전 2~1 세기 | 석회석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015, 1016

사람 모양의 이 석상들은 무덤에 위치를 표시하고, 죽은 이를 기억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네페쉬 석상 (Nephesh stele)으로 불리는 이 석상들은 바레인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네페쉬는 '숨(영혼)'을 뜻하는 아람 어에서 파생된 단어로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These two stones in human form are called nephesh stele. Nephesh is a term that is derived from the Aramaic word for "breath." In the ancient Near East, they had ceremonial uses rather than specifically being tomb markers. Similar objects have also been found in Bahrain.

묘비

Funerary stele

타즈

기원전 3~1 세기 | 석회석

담맘박물관 소장

Dammam Museum, 82

이 묘비는 기원전 3~1 세기에 아라비아 북동쪽에서 사용하던 하세안(Hasaean) 어로 쓰여졌습니다. 죽은 이는 가디야트(Ghadhiyyat)라는 이름의 여성으로 특이하게도 모계 혈통의 조상들만 묘비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This rare funerary stele has Hasaean language, which is associated with northeastern Arabia from around the third to the first century BCE. It identifies the deceased woman as Ghadhiyyat. The stele only mentions her maternal lineage, suggesting the importance of women in this region.

하사 지역 방언이 새겨진 석비

An engraving of the local Hasawi dialect in al-Musnad
calligraphy

타즈

기원전 2~1 세기

담맘박물관 소장

Dammam Museum, 7

타즈의 무덤

1998 년 여름, 아라비아 북동쪽 주바일에서 80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마을인 타즈에서 1 세기 무렵에 조성된 6 세로 추정되는 어린 소녀의 무덤이 발굴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소녀의 얼굴에는 황금 가면이 놓여 있었고 금과 루비, 진주, 터키석으로 장식된 목걸이와 아르테미스 여신이 새겨진 금 귀걸이를 차고 있었습니다. 소녀 주변에는 200 개가 넘는 금으로 된 단추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지중해에서 온 화려한 수입품들이 가득한 이 무덤은 부유한 가문의 자녀에 대한 애뜻한 사랑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동쪽까지 확산된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Tomb of Thaj

In the summer of 1998, a burial chamber with broken capstones was excavated in Thaj, a small town in northeastern Arabia. Once the broken pieces of the capstones were removed, astonishingly, a shiny gold mask appeared in the dirt, followed by necklaces, golden beads, gold foils and other exquisite funerary goods. A little girl, possibly about six years old, had been buried in a royal manner. This remarkable discovery demonstrates the loving care with which the wealthy family of this child buried her according to their customs. These customs themselves were strongly influenced by the beliefs and symbols of the Classical world that were spreading further into the Arabian Desert.

사람 모양의 침대 다리

Anthropomorphic leg of a bed

타즈, 텔 알자예르

1 세기 | 철, 역청, 납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2088

소녀가 누웠던 침대는 지중해 양식으로 꾸몄고, 침대 다리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카메오가 있는 목걸이

Necklace with cameo

타즈, 텔 알자예르

1 세기 | 금, 진주, 터키석, 루비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2059

소녀의 머리말에 있던 목걸이는 루비, 진주, 터키석으로 장식되었습니다.

황금 가면과 황금 장갑

Funerary mask and funerary glove

타즈, 텔 알자예르

기원전 1 세기 | 금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2061, 2063

소녀가 얼굴에 쓰고 있던 황금 가면에는 얼굴의 특징적인 부분만 간단히 표현되었습니다. 가면의 크기로 보아 여자 아이를 위해 특별히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신구(팔찌, 목걸이, 금판)

Ornaments

타즈, 텔 알자예르

1 세기 | 금, 진주, 터키석, 루비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7/2534, 2/2534, 2067, 2062

소녀가 누웠던 자리에서 발견된 금판의 일부에는 제우스 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전자

Pitcher

타즈

기원전 3~1 세기 | 토기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781

조각상

Small figurine

타즈

기원전 3~1 세기 | 토기에 채색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3107

아인 자완

타루트 섬의 북서쪽에 위치한 아인 자완은 아라비아에서 매우 규모가 큰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9 개의 방으로 구성된 대규모 가족 무덤이 발굴되었습니다. 무덤에는 남성 3 명, 여성 1 명이 묻혀 있었고, 금 목걸이와 귀걸이와 같은 화려한 보석들이 함께 묻힌 어린 여자 아이의 무덤도 있었습니다. 이 가족 무덤은 지중해 지역과의 교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상류층 가문의 것으로 보입니다.

Ayn Jawan

Located in the northwest of the Gulf of Tarut, Ayn Jawan is one of the largest archaeological sites on the peninsula and owes its importance to its proximity to the coast. One important discovery was an enormous family tomb with nine chambers built from limestone blocks and mortar. The tomb contained the remains of three men, a woman, and a six-year-old girl buried with rich offerings. The tomb probably belonged to a member of the local upper-class, who had accumulated considerable wealth through trade and was well familiar with luxury items.

목걸이

Torque necklace

아인 자완

2 세기 | 금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316

원형 펜던트

Circular pendant

아인 자완

2 세기 | 금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312

목걸이

Necklace

아인 자완

2 세기 | 금, 마노, 자수정, 홍옥수, 진주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3109

귀걸이

Earrings

아인 자완

2 세기 | 금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310/1-10

장신구

Frontal jewel

아인 자완

2 세기 | 금, 진주, 준보석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311

사막 위의 고대 도시 : 타이마, 올라 그리고 까르얏 알파우

기원전 1000 년 무렵부터 남부 아라비아에서 생산된 향료가 북쪽으로 메소포타미아, 서쪽으로 이집트와 지중해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전설적인 향료 교역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길 위에서 경제적 부를 축적한 국제 도시들이 번성했습니다. 아라비아 북서쪽의 타이마에는 바빌로니아의 마지막 왕인 나보니두스가 10 년 동안 지배하면서 새로운 예술 양식이 전파되었습니다. 기원전 6 세기 무렵부터 기원전 1 세기까지 리흐얀 왕조가 지배했던 올라는 거대한 조각과 사원이 가득한 웅장한 고대 도시였습니다. 아라비아 남부와 북동부를 이어주는 핵심적인 교역로에 있던 까르얏 알파우는 가장 부유했던 도시 중의 하나로 지중해 지역 문화의 영향이 가미된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Ancient Cities in the Desert:

Tayma, a'l- Ula and Qaryat al-Faw

In ancient times, as early as 1000 BCE, the southern regions of the Arabian Peninsula were the only place where frankincense and myrrh were grown and traded. Some cities on the legendary incense route began to accumulate wealth and gain international fame. Tayma, in the northwestern part of the peninsula, attracted the last Babylonian ruler, Nabonidus which resulted in the arrival of a new artistic style. And al-'Ula, a modern name for the ancient settlement in Dedan, became an important stop along the incense route filled with monumental sculptures and temples, while Qaryat al-Faw prospered as one of the wealthiest cities along the ancient trade routes. The objects found in Qaryat al-Faw attest to the presence of a highly cultured international society on the edge of Arabia's Empty Quarter.

타이마

아라비아 북서쪽에 위치한 타이마는 거대한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에 기원전 3 천년기부터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1 천년 무렵에는 아라비아 북쪽과 동쪽을 잇는 향 교역로의 중요한 중간 경유지로서 경제적 번영을 누렸습니다. 타이마에서 출토된 토기와 청동기들은 메소포타미아나 동부 지중해 지역의 영향과 지역 토착 양식의 특징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6 세기 무렵 바빌로니아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가 한때 점령하기도 했던 이 지역은 이슬람이 도래하던 7 세기 무렵까지 북서 아라비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Tayma

Human settlement in Tayma dates back to the third millennium BCE. Its wealth and significance were due to the presence of a large oasis and its location along the legendary incense route that linked northern Arabia to eastern Arabia. The earthenware and bronze ware discovered in Tayma show their own local artistic style mixed with influences from Mesopotamia and the eastern Mediterranean. Tayma, once came under the rule of the last Babylonian king Nabonidus, continu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northwest Arabia until the arrival of Islam in the 7th century CE.

사발

Bowl

타이마, 사나이에

기원전 1 천년기 초 | 토기에 채색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515

이 그릇은 타이마의 사나이에에 있는 한 무덤에서 출토되었습니다. 타이마에서 출토된 토기 중 비교적 큰 이 사발은 질적으로도 우수한 토기입니다. 곱게 정제된 흙으로 나팔 모양의 형태를 만들고 외면에 적갈색으로 기하무늬를 그려 넣었습니다.

This exceptionally large bowl is the finest of a group excavated at Tayma. Its thin, flaring walls are made of fine clay, and the exterior is painted with brownish-red geometric designs. The bowl was found in the corner of a tomb located at Sana'ie in Tayma.

채색 사발

Flat painted bowl

타이마, 사나이에

기원전 1 천년기 초 | 토기에 채색

타이마박물관 소장

Tayma Museum, 524

고운 흙으로 만든 사발에 기하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구연부 안쪽은 흰 바탕에 검은 선을 교차하여 무늬를 채웠고, 바닥 면은 선으로 4 개의 공간을 나누어 무늬를 넣었습니다.

채색 사발

Large painted bowl

타이마

기원전 12~9 세기 | 토기에 채색

타이마박물관 소장

Tayma Museum, TA4300

그릇 안쪽 면에 직선을 그어 여덟 공간으로 나누고, 네 곳에 왼쪽을 향한 새를 그렸습니다. 점과 선, 간략한 형태만으로 새의 특징을 정확히 포착하여 타이마 사람들의 예술적 감각이 드러납니다.

채색 사발

Flat painted bowl

타이마, 사나이에

기원전 1 천년기 초 | 토기에 채색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521

흰 바탕에 기하무늬로 공간을 구획하고 각 공간에 새의 모습
을 규칙적으로 배열하였습니다.

채색 사발

Painted bowl

타이마, 사나이에

기원전 1 천년기 초 | 토기에 채색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511, 509

바닥이 깊어 모양이 원뿔에 가깝습니다. 외벽에는 흰 바탕에 적갈색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단에는 두 평행선 위로 불규칙한 수평선으로 둘러싸인 기하무늬가 있습니다.

항아리

Small jar

타이마, 사나이에

기원전 1 천년기 초 | 토기에 채색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544

채색 잔 또는 향로

Painted cup or incense burner

타이마, 사나이에

기원전 1 천년기 초 | 토기에 채색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3103, 501

바닥이 편평하고 구연부에 작은 손잡이가 달렸습니다. 바깥면은 긴 선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손잡이도 채색되었습니다. 손잡이가 달린 것으로 보아 향로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붉은 간 토기

Bowl with red slip decoration

타이마

기원전 1 천년기 초 | 토기에 채색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981

채색 사발

Painted bowl

타이마, 사나이에

기원전 1 천년기 초 | 토기에 채색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530

표면이 거칠고 물레질 할 때 생긴 흠들이 있습니다. 바깥
면에는 나란히 그은 선 사이에 X 자 문양이 띠를 이루고 있
습니다.

항아리

Small jar

타이마

기원전 1 천년기 초 | 토기에 채색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533

몸체가 구형에 가깝고 구연부가 넓은 이 항아리는 거친 붉은색 점토로 만들었습니다. 바깥 면에는 평행선 세 개가 구연부 아래쪽을 두르고 있고, 그 아래쪽에는 물결선 세 개를 그려넣어 장식적인 효과를 높였습니다.

항아리

Jar

타이마

기원전 7 세기경 | 토기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4791

항아리

Red slip jar

타이마

기원전 7 세기경 | 토기에 채색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269

팔찌

Bracelet

타이마, 사나이에

기원전 1 천년기 초 | 조개껍질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472/3

타이마의 무덤 군에서 모두 여덟 개의 조개 팔찌가 발굴되었습니다. 각 팔찌는 큰 조개껍질을 한 방향으로 자른 뒤 조개 안을 제거하고 잘린 가장자리 부분을 부드럽게 다듬어 만들었습니다.

These ornaments are some of the earliest intact objects to survive from Tayma. They were found in a cluster of rectangular stone chambers reserved for collective burials.

청동 도끼

Bronze Axe

타이마

기원전 1 천년기 | 청동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3088, 364-365

청동 검

Bronze Dagger

타이마

기원전 1 천년기 | 청동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3081

타이마에서 출토된 청동 무기는 전사를 상징하며 무덤에 부장되었습니다. 기원전 2 천 년 무렵에 북쪽의 시리아나 레반트 지역에서 사용한 청동검과 형태가 유사하여, 타이마와 레반트 지역 사이의 직접적인 교류를 알 수 있습니다.

목걸이

Necklace

타이마, 사나이에

기원전 1 천년기 초 | 조개껍질, 돌, 유리, 나무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514, 1500/10, 1500/11

펜던트의 크기와 모양, 재질이 다양합니다. 양 끝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보아 줄을 꿰어 목걸이로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보니두스

기원전 6 세기 중반 바빌로니아의 왕 나보니두스가 10 년 동안이나 타이마에 머물렀던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전 아시리아의 왕들이 그랬듯이 그 역시 부유했던 북서 아라비아 지역을 지배하고 싶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명문에서 그가 이곳에서 활발한 건축 사업을 펼쳤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나보니두스가 타이마에 머물면서 메소포타미아 문화가 이 지역에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바빌로니아는 아케메네스 왕조의 본격적인 침략을 받고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Nabonidus

It still remains a mystery why Nabonidus, the last king of the Neo-Babylonian Empire, decided to settle in Tayma for a decade in the 6th century BCE. It is likely that he had an ambition to control the wealth of northwest Arabia, as had many Mesopotamian kings before him. Some recently found inscriptions confirm that he carried out extensive building projects in this region. Nabonidu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ntroducing Mesopotamian culture to northwestern Arabia, and his stay in Tayma changed the course of world history. However, his absence allowed the Achaemenids from Persia to conquer Babylon and much of the ancient world.

나보니두스 석비

Stele of Nabonidus

타이마

기원전 6 세기 중엽 | 사암

타이마박물관 소장

Tayma Museum, 488

긴 옷을 입고 왕관을 쓴 긴 수염의 인물로 왕을 표현하는 것은 당시 아시리아 왕을 묘사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아치모양의 비석 윗 부분에 희미하게 보이는 인물은 타이마에서 10 년 동안 머무른 나보니두스 왕(기원전 556~539 재위)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주변에는 초승달, 날개 달린 태양, 별과 같은 상징적인 도상들이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일부 판독 가능한 설형문자는 나보니두스가 타이마에 세운 화려한 건축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명문은 나보니두스가 아라비아 북서지역에서 정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른 시기의 사료 중 하나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나보니두스 석비를 탁본하여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고 중근동 석비에 대한 새로운 미감을 제시해 보고자 했습니다. 탁본에서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도상들과 고대 설형문자들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탁본: 국립경주박물관 김중우 학예연구사)

The barely visible figure on the stele most probably represents the Babylonian King, Nabonidus (reigned 556—539 BCE), who settled at Tayma for ten years. It is a typical depiction of an Assyrian king, showing him wearing a long robe and a crown. Nabonidus faces a series of symbol images, including a moon in the form of a disc and a crescent, a winged sun, and a star. The partially legible cuneiform mentions many elaborate buildings that Nabonidus constructed during his stay. The inscription is one of the first pieces of evidence confirming Nabonidus's time in northwestern Arabia.

Stone Rubbing: Kim Jong-woo, Gyeongju National Museum

명문이 있는 원판

Disc-shaped object with an inscription of King Nabonidus

타이마

기원전 6 세기 중엽 | 사암

타이마박물관 소장

Tayma Museum, 9208/3656

설형문자가 새겨진 두 조각은 원판 모양의 조각 일부였습니다. 가장자리에 신바빌로니아 설형문자로 "바빌로니아의 전능한 왕-나보니두스의 그림과 석비"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춧돌

Pedestal

타이마

기원전 5~4 세기 | 사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021

타이마의 함라 사원 유적에서 출토된 이 정육면체 형태의 돌은 건축물의 기단부를 장식했던 주춧돌로 추정됩니다. 두면에 걸쳐 새겨진 도상圖像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태양원반을 들고 있는 소가 중심에 있고 이는 이집트의 아피스 황소(Apis Bull)와 매우 유사하며 긴 옷을 입은 사제와 초승달과 날개 달린 태양 등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상들도 혼재되어 있습니다.

The al-Hamra cube was discovered in al-Hamra Temple at Tayma, an important trading city in northwestern Arabia. Its fine decoration shows Egyptian and Mesopotamian motifs as well as local elements.

함라 석비

Al-Hamra stele

타이마, 까스르 함라

기원전 4 세기경 | 사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020

상부에 메소토타미아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상징적인 도상들이 있고, 아랫 부분에 일부 판독이 가능한 아람 어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고대 근동지역에서 아람 어는 국제 무역어였습니다. 명문에는 리흐얀 왕실 가문의 아들이 봉헌물을 바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로써 이 비석의 연대는 타이마가 리흐얀 왕조의 지배 아래 있던 기원전 4 세기경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This fragmentary stele was found in Tayma, northeast of al-'Ula. Decorated with Mesopotamian-inspired astrological figures, it also bears a partially deciphered Aramaic inscription. Aramaic was an international trade language in the ancient Near East. The inscription refers to the actions of the son of a royal Lihyanite official. This reference helps date the stele to a period from the fourth century BCE, when Tayma was under Lihyanite control.

그림이 새겨진 석판

Stone with engravings

타이마

기원전 4 세기 | 돌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T11

묘비

Funerary stele

타이마

기원전 5~4 세기 | 사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T/M/119

사암으로 만들어진 이 비석에는 직사각형의 틀 안에 낮은 부조로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자드(Zayd)의 아들 타임(Taym)을 기념하여” 라는 아람 어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비석은 남부 아라비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북서부 아라비아와 남부 지역 간의 문화적 교류를 보여줍니다.

This sandstone slab is carved with a face set in a shallow square panel. Below, an Aramaic inscription reads, “In memory of Taym, the son of Zayd.” Such funerary slabs found in Tayma, located to the northeast of al-’Ula, suggest contact between northwestern Arabia and the southern part of the peninsula, where steles of this type were very common.

머리 조각상

Head of a statue

타이마

기원전 4~2 세기 | 사암

타이마박물관 소장

Tayma museum, 489

머리의 크기로 보아 원래 약 4m 크기의 거대한 석상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이집트 인들처럼 머리카락을 뒤로 빗어 넘긴 모습이지만 리흐얀 왕들을 표현한 조각상들과도 비슷합니다.

Originally this carefully shaped head belonged to a large statue made from a single block of stone about four meters high. Although the hair is swept back in an Egyptian style, similar statues have been found and are believed to represent Lihyanite kings.

석상 조각

Statue fragment

타이마

기원전 4~2 세기 | 사암

타이마박물관 소장

Tayma museum, TA200

이 석상은 무릎까지 덮는 천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천을 고정시키는 벨트 왼쪽 끈 부분에 붉은 안료가 남아 있어 이 조각상이 일부 채색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뒷면은 편평하여 기둥이나 벽면에 기대어 세워졌을 것입니다.

Red pigment on the end of the double belt that secures the skirt indicates the statue may have been partially painted. The figure's flat back suggests it probably stood against a pillar or a wall.

제단의 부분

Fragment of an altar

타이마, 까스르 함라

기원전 5~4 세기 | 사암

타이마박물관 소장

Tayma museum, T/M/115

붉은 사암으로 만든 이 물건은 탁자나 제단 등 종교 용품의
아랫 부분으로 추정됩니다.

아람 어 명문이 있는 세면대

Basin with Aramaic inscription

타이마

기원전 1 세기경 | 사암

타이마박물관 소장

Tayma museum, T/M/116

녹색을 띠는 사암 덩어리를 조각하여 만든 이 세면대에는 아람 어 계열인 나바테아 문자로 쓰여진 명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합(Ahab)이라는 사람이 자신과 후손들의 영혼을 위해 여신 만와(Manwah)에게 봉헌한다는 것입니다.

올라

아라비아 북서부의 올라는 항 교역로의 주요 거점이었던 고대 도시 데단이 위치해 있던 지역입니다. 기원전 6 세기 이후 리흐얀 왕조의 지배를 받았던 이 지역은 북서 아라비아를 경유하는 대상들의 물품을 보관하고 세금을 부과하면서 경제적으로 번성했습니다. 리흐얀 인들은 고유 문자를 사용했고 웅장한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데단의 고대 유적 중 하나인 쿠라이바에는 다양한 바위 무덤이 조성되어 죽은 자들을 기렸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기원전 1 세기 말 큰 지진으로 쇠락하기 시작하여 나바테아 왕국의 일부가 되었지만,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고대 중동지역의 문명들이 교류하는 교역로에서 핵심역할을 했습니다.

Al-'Ula

Al-'Ula, a modern name for the place where the ancient city Dedan was once located, was an important stop along the incense route in northwest Arabia. In the 6th century BCE, Dedan rose to prominence under the rule of a local tribe known as the Lihyanites. With their growing economic wealth accumulated by imposing taxes upon the caravans. The Lihyanites developed their own written language and created a rich artistic legacy that was unique to Dedan. They also honored the dead by carving tombs into the rock faces of al-Khurayba, one of the oldest sites at Dedan. Their power began to decline following a massive earthquake at the end of the 1st century BCE. However, the oasis of al-'Ula maintained its status along the incense route and became part of the Nabataean culture's territory.

조각상

Fragment of a statue

올라

기원전 5~2 세기 | 사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999

한 덩어리의 사암을 깎아 만든 이 조각상은 형태와 자세에서 리흐얀 조각상들의 전형적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리흐얀 왕조의 조각가들은 장소와 수요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조각상을 제작했습니다.

Carved from a single block of stone, this statue wears a belted tunic and resembles the more monumental Lihyanite figures in shape and pose. However its smaller size suggests Lihyanite sculptors varied the dimensions of similar sculptural forms to accommodate different spaces and needs.

조각상의 머리

Head of a statue

올라

기원전 4~3 세기 | 사암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275D2

사암으로 된 거대한 남성 머리 조각으로 두건의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역청으로 칠한 표면은 어리 군데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조각상의 머리

Head of a statue

올라

기원전 4~3 세기 | 사암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285D2

사암으로 된 남성 조각상의 머리 부분으로 표면에 역청을 겹겹이 칠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The surface is covered with a layer of bitumen, an organic thick, black, and oily material also known as tar.

남성상

Statue of a man

올라

기원전 4~3 세기 | 사암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140D4

석상의 왼쪽 팔에 원형 구슬로 된 줄무늬 보석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짧은 튜닉을 입고 있으며 허리를 감싼 두 끈이 양측에 매듭져 있습니다. 팔과 다리, 복부의 근육을 명확히 표현한 데서 조각가의 뛰어난 해부학적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남성상

Statue of a man

올라

기원전 4~3 세기 | 사암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134D2

이 거대한 조각상은 허리에 두 겹의 띠를 두른 튜닉을 입었습니다. 복부와 팔 그리고 근육의 해부학적 묘사가 뛰어납니다. 상반신 부분이 검게 보이는 것은 석유와 같은 역청으로 칠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This statue was recently discovered in Dedan(al-'U-la). The skirt was originally painted with white plaster, while the rest of the body was black. It was covered with a coating of the oil-based substance bitumen, which is now crackling surface crust.

남성상

Statue of a man

올라

기원전 4~3 세기 | 사암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137D4

이 조각상은 리흐얀 사원에서 발견된 일반적인 조각상과 형식적으로 유사합니다. 납작한 등을 벽에 기댄 채 서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몸의 일부분에 빨간 안료가 남아 있습니다. 이 조각상이 출토된 사원 주위에서 나온 명문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석상은 리흐얀 시대의 통치자를 표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This impressive statue belongs to a group of recently discovered sculptures at the Lihyanite temple of Dedan (al-'Ula). Its formal pose, closed fists, and sculpted muscles are similar to Egyptian and Syrian sculpture but with a distinct local interpretation.

머리 조각상

Statues of head

올라

기원전 4~3 세기 | 사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32, M30

머리 조각상

Statues of head

올라

기원전 4~3 세기 | 사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32, M30

조각상

Statues

올라

기원전 5~2 세기 | 사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M/31, 1/8

데단 어 명문

Dadanic inscription

올라

기원전 6~2 세기 | 적사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M/55

리흐얀 어 명문

Lihyanite inscriptions

올라

기원전 4~3 세기 | 사암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943

리흐얀 어 명문

Lihyanite inscription

올라

기원전 6~2 세기 | 적사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44

리흐얀 어 명문

Lihyanite inscription

올라

기원전 5~2 세기 | 사암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169D1

사자 조각

Sculpture of a lion

올라

기원전 6~4 세기 | 사암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15D2

고대 중근동에서 사자는 왕의 힘과 위대함을 상징했습니다. 특히, 사자는 주로 사원과 궁전에서 입구를 지키는 모습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올라 지역에서도 무덤 입구에 사자를 새겨 넣기도 했습니다. 새끼 사자에게 젖을 먹이는 암사자의 모습은 맹수로서의 사자와 다른 새로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Throughout the ancient Near East, the ferocious lion was frequently used as a symbol of royal power and greatness. Carvings of fierce lions also guard the Lihyanite cliff tombs in al-'Ula. This fragment of a lioness nursing her young offers a dramatically different and more intimate interpretation of the fearsome animal.

리흐얀 어 명문

Lihyanite inscription

올라

기원전 5~2 세기 | 사암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338D5

리흐얀 왕조 시대에는 고유한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이 명문은 한 장인 이 두가바트(Dhu-Ghabat)에게 작은 조각상을 바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단(또는 향료) 조각

Fragment of an altar or incense burner

울라

기원전 4~3 세기 | 사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280D2

두 줄 사이로 염소 행렬의 모습이 저부조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 조각은 제단의 아랫 부분이나 향로의 일부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울라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붉은 사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마다인 살레

울라 인근의 마다인 살레(또는 히즈르)는 기원전 1 세기부터 나바테아 왕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당시 헤그라로 불렸던 이 도시는 물과 식량자원이 풍부했고 지중해와 페트라로 이어지는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 정착한 나바테아 인들은 페트라의 웅장한 건축물을 연상케하는 거대한 사암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94 개에 이르는 이 무덤들의 크기와 세부 장식은 다양합니다. 무덤 주인의 이름이 입구에 새겨져 있으며 때로는 조각가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나바테아 왕국은 그들만의 언어와 수준 높은 건축 기술을 보유했지만 106 년 로마 제국에 병합되었고, 이후 마다인 살레는 아라비아 주의 일부로서 로마 제국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Mada'in Saleh

The city of Hegra (modern-day al-Hijr, commonly known as Mada'in Saleh) was occupied by the Nabataean kingdom from the first century BCE. The city became an important trade center on the caravan routes from southwestern Arabia to Petra in Jordan and the Mediterranean region. One of the special features of Mada'in Saleh is its enormous sandstone tombs created for the members of the Nabataean upper class. A total of ninety-four tombs with highly crafted exteriors have been discovered at Mada'in Saleh. Some were even inscribed with the names of the tomb owners and the artists. Despite the existence of their own language and sophisticated architectural techniques, Mada'in Saleh became part of the Roman province of Arabia in 106 CE.

나바테아 어 명문

Nabatean inscription

타이마

기원전 1 세기 | 사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M/56

라틴 어 명문

Latin inscription

마다인 살레

175~177 년 | 사암

울라고고민족학박물관 소장

Al-Ula Museum of Archaeology and Ethnography, 23/37/U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의 치세(161~180 년)에 만들어진 이 사암 판에는 헤그라(마다인 살레)에 있었던 한 건물의 재건축을 기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명문에는 로마 군대의 도움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지만 헤그라 시에서 자금을 조달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이 라틴 어 명문은 로마의 한 지방으로 전략한 헤그라와 중앙 정부 사이의 정치, 경제적 관계를 보여줍니다.

Dated to the reign of the Roman Emperor Marcus Aurelius (reigned 161-180 CE), this sandstone slab commemorates the reconstruction of a building in Hegra (Mada'in Saleh). It states that the work was done with the help of a legion of Roman soldiers but was financed by the city of Hegra. The discovery of this Latin commemorative inscription highlights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Hegra and the central government after the city became part of a Roman province.

향로

Incense burner

타이마

기원전 1 세기~기원후 1 세기 | 사암

타이마박물관 소장

Tayma Museum, T/M/3415

향로 윗 부분에 나바테아 어로 된 비문이 적혀 있습니다.
비문에는 "볼란(Bolan)의 아들, 압둘 카타브(Abdul Kattab)의
무덤"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The Nabatean inscription on this incense burner identifies
its owner as "Abdul Kattab, son of Bolan."

향로

Incense burner

타이마

기원전 1 세기~기원후 1 세기 | 사암

타이마박물관 소장

Tayma Museum, 3416

나바테아 양식 기둥머리

Nabataean capital

마다인 살레

1 세기경 | 사암

울라고고민족학박물관 소장

Al-Ula Museum of Archaeology and Ethnography, 37/U 129

라틴 어 명문과 함께 발굴된 이 기둥머리는 아랫 부분에 기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크기로 보아 문이나 대문 장식용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고기 무늬 토기

Pottery decorated with a fish

마다인 살레

6 세기 추정 | 토기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2246

물고기 장식이 있는 토기는 6~7 세기 요르단 북부에서 주로 발굴되는 것으로 이슬람 시대 이전, 원거리 무역으로 번성했던 마다인 살레 문명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옷 조각

Fragment of leather and cloth

마다인 살레

기원전 3 세기~기원후 3 세기 | 직물과 가죽

울라고고민족학박물관 소장

Al-Ula Museum of Archaeology and Ethnography, 10U

항아리

Jar

마다인 살레

기원전 3 세기~기원후 3 세기 | 토기

울라고고민족학박물관 소장

Al-Ula Museum of Archaeology and Ethnography, 10067

항아리

Jar

마다인 살레

2~4 세기 | 토기

울라고고민족학박물관 소장

Al-Ula Museum of Archaeology and Ethnography, 55

까르얏 알파우

까르얏 알파우는 룬 알칼리 사막의 서쪽 끝에 위치한 지역으로 기원전 1 세기부터 기원후 4 세기까지 킨다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천국의 도시'라 불렸던 이 도시는 남부 아라비아를 북동부 아라비아, 메소포타미아, 지중해 지역과 연결했던 향료교역의 거점이었습니다. 1970 년대부터 시작된 발굴 조사로 집과 광장, 거리가 조성된 거주지와 시장, 사원, 묘지들이 확인되었고, 지중해 지역에서 수입한 고가의 장식품, 화려하게 채색된 벽화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거주지에서는 토기, 조각상, 유리병, 직물 등 고대 아라비아의 경제와 종교적 삶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일상 용품들이 출토되었습니다. 까르얏 알파우의 출토품들은 이슬람 시대 이전 남부 아라비아에 자리 잡았던 수준 높은 국제 도시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Qaryat al-Faw

Qaryat al-Faw, located on the western edge of the Empty Quarter, was the capital of the Kindah kingdom from the 1st century BCE to 4th century AD. The so-called 'City of Paradise' was one of the wealthiest cities along the ancient trade routes, linking southern Arabia with northeastern Arabia, Mesopotamia, and the Mediterranean region. Archaeological excavations from the 1970s revealed sumptuous ornaments imported from the Mediterranean and colorful wall paintings as well as large open houses, markets, temples and tombs. Besides, various everyday goods such as earthenware, sculptures, glass bottles and textiles were also discovered, attesting to the presence of a religious culture and the economic status of ancient Arabia before the rise of Islam.

명문 판

Inscribed slab

까르얏 알파우

기원전 1 세기경 | 석회석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2F12

사바 어로 쓴 명문에는 무덤의 조성과 관련된 금전적인 관계를 어기는 자는 오아시스 지역의 신인 칼룸(Kahlum)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니캣(Ahnikat) 족의 가둠(Ga’dum)의 아들 다눔(Da’num)과 그의 아들인 마수드(Mas’ud)와 다움의 아들 실완(Silwan)의 묘지를 세우고, 모든 소유주, 구매자, 대부업자들을 대신하여 칼룸에게 위탁한다.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Written in Sabaic, this funerary slab calls for the tomb to be left alone: “Da’num son of Ga’dum of the Ahnikat clan and his sons Mas’u-d and Ga’dum son of Da’num built from the foundations their Silwan tomb and they entrusted Kahlum against every owner and purchaser and money lender. May he be cursed who would appropriate it.”

건축 부속물

Architectural element

까르얏 알파우

기원전 1 세기 | 석회석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103F12

사원 건물의 한 부분으로 아이벡스(야생염소) 머리 모양으로 된 두 줄 사이로 고대 남부 아라비아 언어인 사바어로 기록한 명문이 남아 있습니다.

This architectural part of a temple was reused for an inscription that appears beneath a row of ibex (wild goat) heads. The inscription is written in Sabeen, an old South Arabian language.

석비

Stele

까르얏 알파우

기원전 5~4 세기경 | 석회석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3F23

“아니카트(al-Ahnikat) 부족, 와일(Wâ'il)의 딸 라티다트(Rathidat)”라고 적혀있어 묘비로 추정됩니다. 두 개의 원 또는 ‘눈’이 있어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냅니다.

The inscription reads, “Rathidat daughter of Wâ'il, clan of al-Ahnikat.” It has two circles or “eyes” that give the stone a mysterious quality.

1.

사파위 명문

Safawi inscription

까르얏 알파우

기원전 1 천년기 | 사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3/1

2.

묘비

Funerary inscription

까르얏 알파우

기원전 1 천년기 후 | 석회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887

아라비아 남부에서 가장 오래된 아랍 어 명문이 있는 묘비로 무덤을 훼손하는 자에 대한 경고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This funerary slab uses one of the oldest known forms of Arabic in a southern Arabian script. It warns against the disrespect or disturbance of the family grave.

3.

문(또는 창문) 상인방

Door/window lintel fragment

까르얏 알파우

기원전 3 세기~기원후 3 세기 | 석회석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15F12

문이나 창문의 상단부를 장식하던 상인방上引枋 조각으로 남부 아라비아의 전형적인 무늬인 아이벡스(야생염소) 머리가 띠의 형태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손잡이가 달린 잔, 켄타로스 등 그리스와 로마의 장식적 요소들이 혼재되어 카르얏 알파우의 국제적인 문화를 보여줍니다.

The design of this lintel shows a band of ibex (wild goat) heads at the top, which is typical of southern Arabian design. The unusual combination of Arabian, Greek and Roman decoration shows the range of international style at Qaryat al-Faw.

명문판

Inscribed slab

까르얏 알파우, 왓드 사워

기원전 1 세기~기원후 1 세기 | 청동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302F8

사원의 입구 벽에 부착되었던 청동 명문 판은 까르얏 알파우에서 미네아 문화와 관습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네아 인들은 향료를 생산하는 남부 아라비아에서 왔지만 대상들을 통제하기 위해 대개 북부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This plaque makes mention of Minean culture and practices at Qaryat al-Faw. Mineans were from the southern incense producing area of Arabia, but they often lived in northern cities because they controlled many of the caravans.

머리 조각상

Statues of head

까르얏 알파우

기원전 3 세기~기원후 3 세기 | 설화 석고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1F10, 50F11

단검을 찬 남자

Man with a dagger

까르얏 알파우

1~3 세기 | 설화 석고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70F10, 70F15

1

아르테미스

Figure of Artemis

까르얏 알파우

기원전 3 세기~기원후 3 세기 | 청동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37F10

2

여성상

Figurine of a female

까르얏 알파우

1~2 세기 | 뼈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3F18

3

남성상

Figurine of a male

까르얏 알파우

기원전 3 세기경 | 청동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287F8

4

하포크라테스

Statuette of Harpocrates

까르얏 알파우

2~3 세기 | 청동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248F6

5

여성상

Figurine of a female

까르얏 알파우

기원전 1 세기경 | 석회석에 채색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1F23/155F9

6

헤라클레스

Statuette of Heracles

까르얏 알파우

1~3 세기 | 청동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214F7

사자 가죽을 들고 어깨에 방망이를 얹은 그리스 영웅 헤라클레스의 모습입니다. 오른 손에는 술통을 쥐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Beautifully modeled, this remarkable statue represents the Greek hero Heracles. He is identifiable by the lion skin he carries and by the club that rests lightly on his shoulder.

7

하포크라테스

Statuette of Harpocrates

까르얏 알파우

1~3 세기 | 청동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209F7

청동 머리상

Statue head

나즈란

1 세기 | 청동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M/38

청동판

Bronze register

나즈란

2 세기경 | 청동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327

두 사마위 신에게 두 도량의 땅과 거기서 생산된 곡물을 바친다는 내용의 명문이 있습니다.

남자의 얼굴

Male face statues

나즈란

1~4 세기 | 설화석고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M/25, M/27

돌 탁자

Stone table

나즈란

기원전 1 천년 | 설화석고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M/24

1

국자

Ladle

까르얏 알파우

1~2 세기 | 은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39F16

2

여과기

Strainer

까르얏 알파우

1~2 세기 | 은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54F13

3

잔

Chalice

까르얏 알파우

3 세기 | 은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34F16

1

문 고리

Door knockers

까르얏 알파우

3 세기 | 청동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346/347F1

2

발 모양의 의자 다리

Chair leg in the shape of a man's foot

까르얏 알파우

1 세기경 | 청동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2235

3

향로

Incense burner

까르얏 알파우

기원전 3 세기~기원후 3 세기 | 청동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216F7

청동 향로는 귀중했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대부분 파괴되었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드뭅니다.

4

등잔

Lamp

까르얏 알파우

기원전 3 세기~기원후 3 세기경 | 청동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2237, 15F13

1

명판

Plaque

까르얏 알파우

2~3 세기경 | 청동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2238

2

조각상(사자의 갈퀴)

Fragment of a statue (part of a lion's coat)

까르얏 알파우

기원전 3 세기~기원후 3 세기 | 청동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102-157F5

3

거울

Mirror

까르얏 알파우

1 세기경 | 청동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19F13

향료 교역

유향과 몰약은 주로 남부 아라비아와 동부 아프리카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이 향료들은 향을 피우는 종교 의식에서부터 상처 치료나 감염 예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교역품이었습니다. 향료 교역로에 위치했던 도시들은 대상(隊商)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한편 세금을 부과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당시에 무거운 세금으로 인하여 향료는 최종 목적지에서 매우 비싼 값으로 거래되었습니다. 3 세기 초 정점에 달했던 향료 교역은 로마에서 과도한 향료 사용과 비싼 값에 대한 거부감이 확대되면서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교의 확대에 따라 향료는 다시 중요한 필수품이 되었고 바닷길을 따라 동남아시아로도 확산되었습니다.

The Incense Trade

Incense, including frankincense and myrrh, was mainly produced in southern Arabia and east Africa, and used across the ancient world for various purposes from ritual to medicinal uses. Some cities along the trade routes provided shelter and accumulated wealth by taxing the caravans that transported it to other parts of Arabia and beyond. Frankincense and myrrh were sold at high prices at the final destinations because of these heavy taxes. Although the demand for incense reached its peak during the early 3rd century CE, it started to decline sharply as some Romans expressed their disapproval over the excessive use of incense and its high price. However, with the rise of Islam, incense once again became a highly valued commodity and exported further down to Southeast Asia along the maritime trade routes.

1

향로

Incense burner

까르얏 알파우

기원전 3 세기~기원후 3 세기 | 석회석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10F22

2

향로

Incense burner

까르얏 알파우

기원전 3 세기 | 석회석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3F7

향로에는 일반적으로 향신료 이름이 적혀 있지만 때로는 봉헌자의 이름이 새겨지기도 했습니다.

3

향로

Incense burner

까르얏 알파우

1 세기경 | 석회석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5F13

삼각형 띠로 장식된 각 면에는 향신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4

향로

Incense burner

까르얏 알파우

연대 미상 | 석회석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56F2

5

향로 제단

Incense altar

까르얏 알파우

1 세기경 | 석회석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255F8

6

향로

Incense burner

까르얏 알파우

기원전 4~1 세기 | 석회석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2184

기다란 향로의 한쪽 면에 꼭대기로 올라가는 뱀이 새겨져 있습니다.

This tall incense burner is decorated on one side with a serpent that rises to the top edge.

향로 제단

Incense altar

까르얏 알파우

기원전 4~1 세기경 | 석회석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24F10

아라비아에서 발굴된 향로와 제단에는 금성을 상징하는 원반과 초승달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은 기원전 5 세기에 처음 나타나며, 아라비아에서 수천 년 동안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A large number of incense burners and altars excavated on the peninsula are decorated with a crescent cradling a disc, which might represent the planet Venus. This symbol first appears on objects dating to the fifth century BCE, and its use continued for thousands of years in Arabia.

향로

Incense burner

까르얏 알파우

1 세기경 | 석회석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45F13

향로 제단

Incense altar

까르얏 알파우

1 세기경 | 석회석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3F13

장례 장면이 그려진 벽화 조각

Fragment with a funerary scene

까르얏 알파우

기원전 1~2 세기 | 석고에 채색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103F12

성곽이 그려진 벽화 조각

Fragment with a tower house

까르얏 알파우

기원전 3 세기~기원후 3 세기 | 석고에 채색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29F22

이 벽화는 돌 위에 지은 성곽을 그린 것입니다. 건물의 모든 층마다 뺑뺑하게 사람들이 들어 차 있습니다. 건물의 꼭대기에는 명문이 적혀 있어서 까르얏 알파우의 중요한 건물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This fragment depicts a tower house built on a stone foundation. A figure appears in every opening of the building. Along the top of the structure is an inscription, which suggests the image may represent an important building at Qaryat al-Faw.

남자가 그려진 벽화 조각

Fragment with the head of a man

까르얏 알파우

1~2 세기 | 석고에 채색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2182

까르얏 알파우의 주거 유적에서 발굴된 이 벽화에는 도시 상류층의 삶이 드러나 있습니다. 짙은 색 곱슬머리의 남자가 하인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알이 가득한 포도가 그의 주변에 있습니다. 이 벽화는 1~2 세기경 중근동 지방에 퍼진 디오니소스 도상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This rare painting from the Arabian Peninsula was discovered in the residential area of Qaryat al-Faw and offers a glimpse into the life of the city's upper-classes. Surrounded by servants, the head of a man with dark curly hair dominates the first panel.

12 궁도十二宮圖가 그려진 벽화 조각

Fragment with zodiacal motifs

까르얏 알파우

1~3 세기 | 석고에 채색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238F9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얼룩무늬 고양이, 사자, 전갈, 켄타우스, 히드라가 그려져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숫양의 뿔도 보입니다. 이 동물들은 하늘에 정렬된 별자리를 나타낸 것으로 고대부터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에서 친숙했던 별자리들입니다.

The design is thought to be a representation of the zodiac, which has been rarely depicted in the Arabian Peninsula.

남자의 얼굴

Head of a man

까르얏 알파우

기원전 1 세기~기원후 2 세기 | 청동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119F13

사자의 머리

Head of a lion

나즈란

2 세기경 | 청동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328

청동으로 만든 포효하는 사자의 머리는 콰르얏 알파우의 남서부 나즈란(Najran)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나즈란은 북부 아라비아로 가는 향료길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사자의 모습에 그리스-로마 조각의 특징을 보이지만, 눈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사실적으로 표현된 갈기, 고부조로 된 수염은 아라비아 남부의 특징적인 표현 양식이기도 합니다.

The bronze head of a roaring lion was discovered at Najran, southwest of Qaryat al-Faw. Najran was another important city along the incense road that enjoyed trade contacts with northern Arabia and beyond. While the lion's shows some Greco-Roman features, its inlaid eyes, stylized mane, and expressive whiskers are more typical of southern Arabia, where it was created.

조각상(손)

Fragment of a statue

까르얏 알파우

기원전 3 세기~기원후 3 세기 | 청동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240/149-84F5

침대 다리

Bronze columns

from a funeral bed

까르얏 알파우

1 세기경 | 청동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49F16

침대의 다리 부분으로 로마식 의자인 클리네(Klinai)의 다리 형태를 모방한 것입니다.

침대 머리 장식

Fragment of a funerary bed

까르얏 알파우

1 세기경 | 금동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38-48F16

까르얏 알파우에서는 로마에서 수입한 값비싼 침대를 무덤에 묻었습니다. 말 머리와 사냥의 신 아르테미스의 모습이 있는 이 장식은 침대 머리 부분에 붙였던 것입니다. 지중해 지역에서 온 수입품들은 남부 아라비아에서 매우 인기있는 사치품이었습니다.

One of the burial chambers discovered in Qaryat al-Faw included a magnificent Greco-Roman funerary bed. Similar to other cast bronze objects from Qaryat al-Faw, the funerary bed highlights both the popularity and the availability of Greco-Roman luxury items in southern Arabia.

침대 장식

Pieces from a funeral bed

까르얏 알파우

1 세기경 | 청동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50F16, 51F16

부적

Amulet

까르얏 알파우

기원전 1 천년기 | 돌, 금과 루비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35F8

음악과 다산의 신, 베스(Bes)에 대한 숭배는 고대 이집트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도 나타납니다. 금과 루비로 장식한 이 부적은 아라비아 남부까지 확산되었던 이집트 문화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스카라브

Scarab

까르얏 알파우

기원전 1 천년기 | 돌, 금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2227

종 모양의 귀걸이

Bell-shaped earrings

로마

1~3 세기 | 금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79F12

이시스-티케

Statuette of Isis-Tyche

까르얏 알파우

기원전 1세기~3세기 | 유약 바른 토기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241F8

기다란 관을 쓰고 풍요의 별을 지닌 여인은 이집트 행운의 여신 이시스-티케를 표현한 것입니다. 로마시대에 수입한 것으로 가정에서 의례용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신구(귀걸이, 목걸이, 장신구)

Ornaments

까르얏 알파우

1~3 세기 | 금, 마노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16F1, 63F10, 82F12

항아리를 실은 아라비아 낙타 소조상

Figurine of an Arabian camel with jars

까르얏 알파우

기원전 3 세기~3 세기 | 점토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36F16

아라비아 낙타 청동상

Figurine of an Arabian camel with inscription

까르얏 알파우

기원전 2 세기~2 세기 | 청동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249F6

작은 낙타의 배 밑에 두 개의 구멍을 뚫어 지지대로 바닥에 고정시켰습니다. 두 사마위(dhu Samawi) 신에게 이 낙타를 바친다는 명문으로 보아 의례용으로 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마위는 대상(caravan) 부족이었던 아미르(Amir) 족이 숭배했던 신이었습니다.

단봉낙타 소조상

Figurine of a dromedary camel

까르얏 알파우

기원전 1세기~3세기 | 점토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11F26

고대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낙타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목과 뒷다리에 새겨진 무늬는 마구馬具를 나타내거나 또는 특정 의식을 위해 새긴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낙타 청동상

Figurine of a camel

까르얏 알파우

기원전 2 세기~2 세기 | 청동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36F11

잔

Beaker

까르얏 알파우

1 세기 | 유리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45F16

까르얏 알파우에서 출토된 유리 잔, 사발, 병은 대부분 로마에서 수입한 것입니다. 주로 연회나 값비싼 오일과 향수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These well-preserved glass cups, flasks, and beakers were imported into southern Arabia from the Roman Empire, Egypt, and Mesopotamia. They were used for banqueting ceremonies or to store precious oils and perfumes.

접시

Ribbed cup

까르얏 알파우

기원전 1 세기 후~기원후 1 세기 | 유리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90F11

사발

Bowl

까르얏 알파우

기원전 1 세기 | 유리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2242

사발

Plate

까르얏 알파우

1 세기 | 유리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105F13

사발

Bowl

까르얏 알파우

1 세기 | 유리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2243

1

향유병

Aryballos

이집트 또는 메소포타미아

1 세기 | 유리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85F7

2

발삼병

Balsam bottle

까르얏 알파우

1 세기 | 유리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25F11

3

유리병

Small flask

까르얏 알파우

기원전 1 세기~기원후 1 세기경 | 유리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2239

4

대추야자 모양 병

Date-shaped flask

까르얏 알파우

1 세기 후~2 세기 초 | 유리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2240

5

유리병

Glass bottle

까르얏 알파우

1 세기 | 유리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27F13

이름이 적힌 사자 모양 추

Lion-shaped weight with inscription

까르얏 알파우

1 세기경 | 청동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294F6

추의 무게는 약 4 킬로그램 정도이며 토착신 칼(Kahl)과 소유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동전

Currency

까르얏 알파우

1~4 세기 | 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4941, 4946, 4947, 4948

서 있거나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앞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뒷면에는 이 지역 토착 신인 칼(Kahl)의 이름이 사바 문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은과 동으로 만든 동전들이 거주 지역에서 출토되어 부유했던 까르얏 알파우의 일상 생활을 보여줍니다.

추

Weight

까르얏 알파우

1 세기경 | 청동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285F5, 465F1

남자가 그려진 직물 조각

Textile fragment with the bust of a man

까르얏 알파우

기원전 3 세기~기원후 3 세기 | 양모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182F8

까르얏 알파우에서는 다량의 낙타 털, 양모와 린넨 직물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직물과 함께 실뭉치, 가락바퀴, 바늘 같은 도구들이 출토되어 직물을 제조했던 공방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물 조각

Textile fragment

까르얏 알파우

기원전 3 세기~기원후 3 세기 | 린넨, 양모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179F8, 182F8

가락바퀴

Spinning whorl

까르얏 알파우

기원전 3 세기~기원후 3 세기 | 돌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251F7, 101F9

실뭉치와 바늘

Ball of yarn and needle

까르얏 알파우

기원전 3 세기~기원후 3 세기 | 양모, 청동, 나무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6F10, 48F10, 69F2

원뿔형 병

Conical vase

까르얏 알파우

기원전 2~1 세기 | 석회석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75F2

접시

Plate

까르얏 알파우

기원전 2 세기~기원후 2 세기 | 토기에 채색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52F20

암포라

Amphora

까르얏 알파우

기원전 1 세기~기원후 1 세기 | 도기에 유약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172F2

채색 토기

Painted earthenware

까르얏 알파우

1~2 세기 | 토기에 채색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9F18

1

암포라

Amphora

까르얏 알파우

기원전 1 세기~기원후 1 세기 | 도기에 유약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26F17, 13F28

2

스키포스 (술잔)

Skyphos (drinking cup)

까르얏 알파우

기원전 1 세기~기원후 1 세기 | 도기에 유약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2253

3

항아리

Jar

까르얏 알파우

기원전 1 세기~기원후 1 세기 | 도기에 유약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173F2

병

Gourdes

까르얏 알파우

기원전 2 세기~기원후 2 세기 | 도기에 유약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14F22, 5F16

항아리

Pottery jars

자잔

1 세기 | 채색 토기

사비아주박물관 소장(오른쪽)

Sabia P. Museum, Jazan, 166(right)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왼쪽)

National Museum in Riyadh, M/19(left)

단지

Pot

제라시

동석凍石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J

가면

Stone mask

자우프

1 세기 | 화산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36/M

등잔

Lamp

제라시

동석凍石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2/J

순례길

631 년 예언자 무함마드는 이슬람교를 회복하기 위해 메디나를 떠나 메카로 갔습니다. 이른바 '하즈'라 불리는 이 중대한 여정은 순례길이 되어 많은 이슬람교도들이 이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슬람의 성지 메카와 메디나로 가기 위해서는 네 개의 중요한 길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아라비아 남서부의 예멘에서 시작하는 길은 예멘과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에서 온 순례자들이 이용했습니다. 다마스쿠스에서 시작하는 길은 북서부 울라 지역을 통과했고, 이집트, 북아프리카 및 스페인에서 온 순례자들은 시나이 반도를 통과하는 길을 따라 육로로 여행했습니다. 바그다드에서 시작되는 순례길인 '다르브 주바이다'는 이라크,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순례자들이 이용했던 가장 유명한 길이었습니다.

Pilgrimage Roads

In 631 CE, a year before his death, the Prophet Mohammed traveled from Medina to Mecca. This momentous undertaking became known as the hajj and was followed by millions of Muslims. There were four key roads to the holy cities of Mecca and Medina. Travelers from Yemen and the Horn of Africa walked along the Yemeni road, while the one starting from Damascus passed through al-'Ula on the former trading route. Pilgrims from Egypt, North Africa and Spain traveled by land, taking the route that passed through the Sinai Peninsula. Among them, the most famous pilgrimage route was Darb Zubaydah which was full of pilgrims traveling from Iraq, Persia, and Central Asia.

동전(디나르)

Dinar

다르브 주바이다, 하일

778~824 년 | 금, 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10/AH

다르브 주바이다(Darb Zubayda) 순례길에서 출토된 이 동전들은 압바스 왕조 시대(749~1258 년)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 칸트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These coins date from the Abbasid period (749 —1258 CE) and have been found along the Darb Zubayda pilgrimage road. One was minted as far away as Samarkand in modern-day Uzbekistan.

항아리

Pottery Jar

다르브 주바이다, 하일

도기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1/AH

명판

Plaque

1520~1566 년 | 대리석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909

이 명판에는 1520 년부터 1566 년까지 오스만 제국을 통치했던 술탄 술틀레이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정돈된 글씨와 매끄러운 표면으로 볼 때 중요한 공공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술탄 중 한 명인 술틀레이만은 메카 사원의 두 첨탑(Minaret)을 재건하고 세번째 첨탑을 추가로 건축하여 신성한 사원의 수호자로서 족적을 남겼습니다.

This elegant plaque is inscribed with the name of Sultan Süleyman the Magnificent, the powerful ruler of the Ottoman dynasty from 1520 to 1566. Its smooth surface suggests it was probably located in a prominent, public location. A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sultans and guardians of the sanctuaries, Süleyman left his mark on Makkah by rebuilding two minarets and adding a third one.

항아리

Jar

라바다

7~8 세기 | 유약을 칠한 토기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SN

이러한 크기의 항아리는 대개 저장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라크 지역 항아리와의 관련이 있습니다.

Such large glazed jars are traditionally associated with Iraq
and were used for storage purposes.

그릇

Vessels

라바다

9~10 세기 | 토기에 채색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2294, 8R123, R3-55, 2317, 349

병과 플라스크

Bottle and Flask

라바다

7~10 세기 | 유리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R-7-88, R-8-107, 2293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R4-102, R14-37, R14-2, R18-11

7 세기 말부터 10 세기까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유리병들은 순례길을 끼고 있는 라바다 지역의 대표적인 출토품입니다. 수수해 보이는 이 일상용품들은 초기 이슬람 세계 전역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순례자들은 휴대가 간편한 개인 용품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여행 중 자금이 필요할 때 병이나 병 안에 담긴 것을 팔기도 했습니다. 라바다 지역에 유리 가마 유적이 있어 직접 제품을 생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ating from the late seventh to the tenth century CE, these glass vessels represent the type of objects found in al-Rabadha along the pilgrimage road. These modest, everyday items were used throughout the early Islamic world. Pilgrims likely included such easily transportable pieces among their personal effects - or they could have sold them and their contents as a way to raise money on the long journey. The remains of a glass kiln in al-Rabadha suggest that glass vessels were also produced locally.

벽 장식 조각

Fragment of a wall decoration

라바다

9 세기 | 석고에 채색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2399

화려한 채색이 가미된 종교 건물 장식의 한 부분으로 'باس
말라(자비심 깊고 자애로운 신의 이름으로)'와 신앙 고백이
적혀 있습니다.

This rare and colorful plaster fragment must have adorned
a religious building in al-Rabadha. The inscription begins
with the Basmala and the profession of faith.

잔

Cup

라바다

9~10 세기 | 유리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2289

병

Bottle

라바다

8~10 세기 | 유리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R7-96

병

Vase

라바다

7~9 세기 | 유약을 입힌 토기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R25-1

어금니 모양 병

Molar-shaped flask

라바다

9~10 세기 | 유리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R6-100

향로

Incense burner

라바다

7~10 세기 | 동석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R8-102

약 사발

Pharmaceutical vessel

라바다

7~10 세기 | 유리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R19-21

1

그릇 조각

Fragments of a bowl

라바다

9 세기 | 유약을 입힌 채색 토기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37R6, R6-18

2

바라카 ('축복')가 적힌 그릇 조각

Fragment of a bowl inscribed : baraka ("blessing")

라바다

9 세기 | 코발트로 칠한 토기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2330

3

저울 상자

Scales box

라바다

8~10 세기 | 나무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R7-116

1

그릇 조각

Fragments of a bowl

라바다

9 세기 | 유약을 입힌 채색 토기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37R6, R6-18

2

바라카 ('축복')가 적힌 그릇 조각

Fragment of a bowl inscribed : baraka ("blessing")

라바다

9 세기 | 코발트로 칠한 토기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2330

3

저울 상자

Scales box

라바다

8~10 세기 | 나무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R7-116

4

장식 판

Decorated panel

라바다

8~9 세기 | 나무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R2-429

5

항아리

Jar

라바다

8~10 세기 | 토기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R16-9

6

주둥이가 있는 그릇

Spouted vessel

라바다

8~10 세기 | 구리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2363

키스와의 일부

Section of a Kiswah

면, 비단, 금사와 은사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Q/23, T/1

1

병과 젓개

Bottle and stirrer

라바다

8~10 세기 | 구리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R5-132, R5-162

2

향로

Incense burner

라바다

8~10 세기 | 구리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R5-132

3

사발

Bowl

라바다

8~9 세기 | 구리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1R25

4

사람 모양의 악기 머리

Head of an instrument shaped like a human head

라바다

8~9 세기 | 뼈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R6-64

5

아랍어가 새겨진 뼈 조각

Piece of bone

with engravings in Arabic

라바다

8~10세기 | 뼈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5-R1

6

접시

Dish

라바다

7~10 세기 | 동석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R8-103

7

각등

Lantern

라바다

8~9 세기 | 동석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R-12-46, R-8119, R156

항아리

Jar

라바다

9 세기 | 토기에 채색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R-8119

라바다

메디나에서 북동쪽으로 200km 떨어진 라바다는 이슬람 이전 시대의 오래된 주거지 중 하나로 낙타와 말을 위한 목초지로 유명했으며, 토양과 식물 자원이 풍부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 계속된 발굴 결과로 거대한 주거지와 사원, 저수 시설, 묘지 등 초기 이슬람 시대에 번성했던 도시의 흔적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 지역에서 생산한 도자기와 유리, 금속, 보석 등의 물품들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슬람 시대 이후 라바다는 바그다드에서 시작하는 순례길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 이라크에서 온 상인과 순례자들에 의해 채색 토기와 장식품과 같은 특정한 수입품들이 아라비아 전역으로 유통되었습니다.

Al-Rabadha

Located approximately 200km away from Medina, al-Rabadha was known for having the best pastures for camels and horses. Its fertile soil produced over 50 species of plants and shrubs. In Islamic times, al-Rabadha was considered one of the principal stops on the trade and pilgrimage routes, connecting Mecca and Medina to Iraq. A series of excavations made since 1970s revealed houses, mosques, wells, cisterns, a cemetery and a wide variety of objects such as ceramics, jewelry and metal objects, attesting to the widespread presence in the Arabian Peninsula of certain types of products from Iraq brought by merchants and pilgrims.

이정표

Milestone

다르브 주바이다

8 세기 후 | 화강암 또는 현무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356

이 이정표는 이라크 바그다드와 쿠파에서 시작한 순례길의 중간에 놓였던 것으로 지금까지 모두 다섯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쿠파에서부터 62 바리드(Barid) 떨어져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리드는 압바스 시대의 거리 단위로 대략 20km 를 가리킵니다.

This milestone is one of five found so far on the Darb Zubayda, the well-traveled route from the Iraqi cities of Baghdad and Kufa to Makkah.

명문 판

Inscription panel

메카

1402 년경 | 대리석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8

이 대리석 판의 명문에는 이집트 맘루크 왕조의 술탄 파라지(Faraj, 재위 1314~1412 년)가 메카의 복원 작업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명문 판

Inscription panel

마흐드 알-다하브, 히자즈

916~917 년 | 현무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899

압바스 칼리파 무끄타디르(Muqtadir)(재위 908~932)가 의뢰한 순례길 건설을 기념하는 명문입니다. 명문 하단에 도로를 건설한 날짜가 적혀있습니다.

This inscription commemorates the reconstruction of a pilgrimage road commissioned by the Abbasid caliph Muqtadir (reigned 908–932 CE). The date stands out at the bottom.

1

병

Flasks

주바일

9~12 세기 | 유리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3524, 3525

2

사발

Bowl

주바일

9 세기 | 도기에 채색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3521, 3530

3

주전자

Pitcher

주바일

9~12 세기 | 도기에 채색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3526

4

사발

Bowl

우까이르

11 세기 | 토기에 채색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M/14

5

유리 병

Glass Bottle

쿠바르

유리

담맘박물관 소장

Dammam Museum, 381

6

항아리

Glazed Pottery Jar

쿠바르

도기에 채색

담맘박물관 소장

Dammam Museum, 379

7

사발

Pottery Bowl

쿠바르

도기에 채색

담맘박물관 소장

Dammam Museum, 380

8

항아리

Glazed ceramic jar

하슬

11 세기 | 도기에 채색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954

1

냄비

Pot

주바일

9~12 세기 | 동석凍石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3523

2

사발

Bowl

주바일

9~12 세기 | 구리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3522

3

사발

Glazed ceramic bowl

주바일

11 세기 | 도기에 채색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M/12~16, 3521

접시

Dish

주바일

9 세기 | 도기에 채색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3529

1

문(또는 창문)의 상인방 上引枋

Door/Window lintel fragment

하우라

12 세기 | 스투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Hawra 16

2

상판 조각

Fragments of a facing

마비아트

9~10 세기 추정 | 성형 토기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2385, 852/2, 1031

3

별 모양 등잔

Star-shaped lamp

마비아트

8~10 세기 | 동석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73M2

4

향로 조각

Incense burner fragment

마비야트

8~10 세기 추정 | 구리

킹사우드대학박물관 소장

King Saud University Museum, 237M2

5

장식 잔

Cup with decoration

마비아트

10 세기 | 토기에 채색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034

6

자기 조각

Fragments of porcelain

메카, 자잔, 동부 주州

13-14 세기 | 자기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3664, 1/649

7

청자 조각

Fragments of celadon

메카, 자잔, 동부 주州

13-14 세기 | 도자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4/680, 6/680, 2~6/649

청화백자 조각

Fragments of a blue and white porcelain

메카, 자잔, 동부 주州

13-14 세기 | 도자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3659, 3660, 3661, 1/3138,
4/3138, 1/911, 12/680

9

백자 조각

Fragments of a white porcelain

메카, 자잔

13-14 세기 | 도자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3362, 3655, 3656, 3657, 3658,
3662, 3663, 3666, 11/680, 12/680

메카와 메디나로 가는 길

622 년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박해를 피해 메카를 떠나 메디나로 향한 이후 이슬람교는 아라비아를 넘어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메카와 메디나는 이슬람 세계의 종교적 중심지가 되어 시리아, 이집트, 이라크, 예멘 등 주변 지역에서 순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제까지 향로를 운반하던 교역로는 성지를 향해 모여든 수많은 이들의 순례길이 되었습니다. 순례는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리는 긴 여정이었기에 순례자들은 많은 물품을 가지고 다녔고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도자기나 유리, 금속 공예품들을 팔거나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순례길에서 출토된 각종 취사 도구나 저장용기, 개인 용품들은 당시의 일상생활 및 경제·예술 활동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Roads to Mecca and Medina

In 622 CE, the Prophet Mohammed traveled from Mecca to Medina and Islam spread rapidly beyond the borders of Arabia by the late 7th century. Many complex networks of roads were needed to accommodate a huge number of Muslims on a pilgrimage to Mecca. Roads that once transported a variety of goods out of Arabia now became a pilgrimage route to this holy site. As a result, additional way stations, wells, and supply centers were created along several major routes. The difficult journey to and from Mecca could take months—and even years. To pay some of their expenses, pilgrims traveled with portable goods such as ceramics, glass, metal objects, and textiles that they could sell or exchange.

이슬람교의 확대

632 년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죽은 후 그의 장인이자 동지였던 아부 바크르가 2 년 동안 이슬람 공동체의 지도자(칼리프)가 되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이슬람은 빠르게 확대되어 그 영역이 동쪽으로는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 서쪽으로는 비잔틴 제국의 경계에 이르렀습니다. 무함마드가 죽은 지 30 년 후에 탄생한 최초의 이슬람 왕조인 우마이야(661~750 년)는 다마스쿠스를 중심으로 인더스 강에서 대서양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이슬람이 여러 문화권으로 확대되는 사이 메카는 이슬람의 정신적인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The Rise of Islam

Following the Prophet's death in 632 CE, Abu Bakr, his father-in-law and close companion, succeeded him as leader of the Muslim community (caliph) for the next two years. Islam expanded rapidly for a short period of time. Abu Bakr conquered the entire Arabian Peninsula and his power reached the frontiers of the Sasanian Empire of Persia in the east and the Byzantine territories in the west. Thirty years after the Prophet's death, the Umayyads (661-750 CE), the first Islamic ruling family, came to power. Centered in Damascus, the empire stretched from the Indus River to the Atlantic Ocean. Mecca established its position as the spiritual center of Islam while it was quickly expanding to different regions.

메카

메카는 향료 교역로에서 다소 떨어져 있었지만 홍해와 가까워 해상교통이 편리하고 물이 풍부했던 도시였습니다. 5세기경 메카 지역을 지배하던 꾸라이시 부족이 주변 지역과 활발히 교역하면서 도시가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 시대가 시작되고 '신의 집'이라 불렸던 메카의 사원은 여러 차례 보수와 재건축을 거듭하면서 도시 전체가 거대한 성지로 변모하였습니다. 1517년 오스만 제국이 아라비아를 차지한 이후 오스만의 술탄과 그 가족들은 메카와 메디나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원을 수리하고 순례자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개선하면서 이슬람에 대한 자신들의 헌신과 책임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때로는 직접 순례를 나서며 뛰어난 예술성을 지닌 성물들을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Mecca

Although Mecca was situated some distance from the incense route, it became an important trading center in the 5th century CE due to its proximity to the Red Sea. It quickly became prosperous as the Quraysh tribe was actively involved in the caravan trade. Since the beginning of the Islamic age, bait Allah (House of God) or Holy Mosque, has featured an impressive arcade of columns and major remodeling and reconstruction took place during the prosperous Saudi era. In 1517, the Ottomans gained control over the Arabian Peninsula. They also became the custodians and protectors of Islam's two most sacred mosques, Mecca and Medina. The Ottomans were responsible not only for the protection of all Muslims but also for the maintenance of the holy cities. They even donated precious objects in support of the holy sites.

카바 신전의 문

이 거대한 나무 문은 메카 카바 신전의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던 것으로 오스만 제국의 술탄 무라드 4 세(재위 1623~1640 년)가 헌정한 것입니다. 도금한 은판에 세밀한 장식을 새기고, 이를 나무에 붙였습니다. 우아한 고리쇠가 달린 은판은 이스탄불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카바 문에 대한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이슬람 시대 초기의 카바 문의 형태가 수 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0 세기의 한 시인이 “도금한 은판 위에 명문과 원, 아라베스크 문양이 덮여있다”고 쓴 적도 있어, 17 세기에 제작된 이 오스만 시대의 문과 형태가 비슷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은 1947 년 까지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메카 신전을 장식하고 있는 문은 이때 교체된 것입니다.

Door of the Ka'ba

This massive silver-gilt wooden door was donated by the Ottoman sultan Murad IV (reigned 1623—1640) and stood at the entrance to the interior of the Ka'ba. The panels consist of a wooden core that has been covered with gilded and hammered silver. The central and the elegant knockers at the top indicate the door was manufactured in Istanbul. According to descriptions of earlier Ka'ba doors, their appearance has changed little over the centuries. A poet in the tenth century maintains that the door was "covered with inscriptions, circles and arabesques in gilded silver," much like this 17th century Ottoman example. The door was in use until around 1947, when it was replaced by a new one.

예언자의 모스크의 샤미 문을 덮는 천

The Curtains of the Shami Door (one of the many doors of the Prophet's Mosque)

메디나

견, 금사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3 K.A

세 개의 펼침 면으로 구성된 쿠란

Three double pages of an edition of the Holy Qur'an

북아프리카 또는 중동

압바스 왕조, 9 세기 | 양피지에 잉크와 금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47-1/46, 1/36

양피지에 금으로 글씨를 쓰고 갈색으로 테두리를 둘렀습니다. 발음을 알려주는 빨간색, 파란색 원 기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금을 사용했고 글씨가 균형 잡혀있는 것은 쿠란의 이른 시기 판본의 특징입니다.

키스와의 일부

Section of a Kiswah

메카

1992 년 | 면, 실크, 금사와 은사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National Museum in Riyadh, M/1

카바 신전을 덮는 천인 키스와는 메카에 바치는 가장 귀중한 헌정품 중 하나입니다. 키스와를 메카에 매년 보내는 전통은 여기에 기록된 대로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이 키스와는 메카에서 제작되었으며, 신성한 두 사원의 수호자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파흐드 이븐 압둘아지즈(재위 1982~2005)가 바쳤다. 신이여 그를 보호하소서. 1992 년 (이슬람력 1413 년)"

Among the most precious gifts to Makkah is the Kiswah, the cloth that covers the Ka'ba. The annual tradition of sending a Kiswah to Makkah continues to this day, as recorded in this fragment. "This Kiswah is manufactured in the noble [city of] Makkah and offered to the holy Ka'ba by the custodian of the two holy sanctuaries Fahd ibn Abd al-Aziz al-Sa'ud, may God protect him; the year 1413."

1

쿠란의 한 면

Folio from an edition of the Holy Qur'an

북아프리카 또는 중동

압바스 왕조, 10 세기 | 양피지에 잉크

킹파이잘이슬람연구센터

King Faisal Centre for Islamic Research and Studies, 2580

2

쿠란

Holy Qur'an

오스만 왕조

16~17 세기 | 종이에 잉크, 채색, 금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2

화려하게 채색된 이 쿠란은 16~17 세기 오스만의 전형적인 서체인 나스크 체와 무하카크 체로 필사된 것입니다. 순례 기간 동안 오스만 제국의 술탄들이 카바 신전에 헌정했던 많은 선물 중 하나입니다.

This richly illuminated manuscript of the Holy Qur'an is copied in a combination of naskhi and muhaqqaq scripts, typical of Ottoman copies made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It was probably among the many gifts offered to the Ka'ba, especially during the annual hajj.

3

쿠란

Holy Qur'an

1598 년

알리 이븐 술탄 무하마드 알-하라위가 메카에서 필사

종이에 잉크와 금

킹파이잘이슬람연구센터 소장

King Faisal Center for Islamic Research and Studies, 2535

자물쇠와 자물쇠 판

Lock and Lock plate

1603~1617 년 | 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3005/1-2, 3013

카바 신전에서 상징적으로 가장 중요한 헌정품 중 하나는 신전 입구의 자물쇠와 열쇠입니다. 술탄 아흐메드 1 세(재위 1603~1617) 등 오스만의 술탄들은 정기적으로 열쇠와 자물쇠를 만들어 헌정했습니다. 16 세기 이후 열쇠와 자물쇠는 대개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졌고 헌정자의 이름과 쿠란의 구절이 새겨졌습니다.

One of the most symbolically important gifts to the Ka'ba was the lock and key to its entrance. Sets were regularly donated - in this case, by the Ottoman sultan Ahmed I (reigned 1603-17). After the 16th century, the keys and locks were usually made of either gold or silver and were inscribed with verses from the Holy Qur'an and the name of the donor.

향로

Incense burner

메카

오스만 왕조, 1649 년

철, 금, 은, 손잡이 포함

14×27.4×44cm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2999

이슬람 시대에도 향은 각종 의례와 행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향로는 메디나의 술탄 아흐마드 1 세의 부인인 마흐페이케르 (Mahpeyker)가 메디나 사원에 헌정하기 위해 의뢰한 것입니다. 섬세한 꽃 장식이 상감된 이 향로는 이스탄불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17 세기 중반 오스만 제국의 궁중 양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스만이라는 작가의 이름이 손잡이 아래에 새겨져 있어 장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This impressive incense burner was commissioned by the wife of Ahmed I, Mahpeyker, for the shrine at Medina. The shape of the large incense burner with its delicate inlaid floral decoration is characteristic of mid-17th-century Ottoman court style and was likely produced in Istanbul. The name of the artist, Uthman appears under the handle indicating that he must have been particularly proud of this important commission. As an object in its own right, the burner shows the continued importance of incense in the Islamic world.

촛대

Candlestick

메카

오스만 왕조, 1757 년 | 구리에 도금

킹압둘아지즈도서관 소장

King Abdulaziz Library, 2 K.A

신전을 밝힐 램프나 촛대, 양초는 메카와 메디나를 위한 헌정품으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 두 개의 커다란 촛대는 오스만 장인들의 기술을 잘 보여줍니다. 명문에 따르면, 이 촛대는 오스만 왕조의 고위직이자 1525 년에서 1538 년까지 이집트의 총독이기도 했던 카딤 술레이만 파샤 (Khadim Sulayman Pasha)가 헌정한 것입니다.

Some of the most popular objects donated to Makkah and Medina included mosque lamps, candlesticks, and wax candles to light the shrines. These two large candlesticks are characteristic of Ottoman craftsmanship. According to an inscription on the candlestick, it was a gift from Khadim Suleyman Pasha, a high-ranking individual at the Ottoman court, who also served as governor of Egypt from 1525 to 1538.

카바 신전의 문

Door of the Ka'ba

메카

오스만 시대, 1635~1636 년 | 나무에 은 도금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355/1-2

이 거대한 나무 문은 메카 카바 신전의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던 것으로 오스만 제국의 술탄 무라드 4 세(재위 1623~1640 년)가 헌정한 것입니다. 도금한 은판에 세밀한 장식을 새기고, 이를 나무에 붙였습니다. 우아한 고리쇠가 달린 은판은 이스탄불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카바 문에 대한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이슬람 시대 초기의 카바 문의 형태가 수 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0 세기의 한 시인이 “도금한 은판 위에 명문과 원, 아라베스크 문양이 덮여있다”고 쓴 적도 있어, 17 세기에 제작된 이 오스만 시대의 문과 형태가 비슷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은 1947 년까지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메카 신전을 장식하고 있는 문은 이때 교체된 것입니다.

This massive silver-gilt wooden door was donated by the Ottoman sultan Murad IV (reigned 1623—1640) and stood at the entrance to the interior of the Ka'ba. The panels consist of a wooden core that has been covered with gilded and hammered silver. The central and the elegant knockers at the top indicate the door was manufactured in Istanbul. According to descriptions of earlier Ka'ba doors, their appearance has changed little over the centuries. A poet in the tenth century maintains that the door was “covered with inscriptions, circles and arabesques in gilded silver,” much like this 17th century Ottoman example. The door was in use until around 1947, when it was replaced by a new one.

촛대

Candlestick

메카

오스만 왕조, 1540 년 | 구리에 도금

킹압둘아지즈도서관 소장

King Abdulaziz Library, 1 K.A

말라 지역의 묘비

메카의 북쪽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던 말라 지역의 묘비에는 9~10 세기경 이슬람 교도들의 삶과 종교에 대한 감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형태가 정연하지 않은 현무암을 이용해 만든 이 묘비들은 죽은 사람의 이름과 직업, 조상과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슬람의 기도 문구로 시작하는 비문은 이슬람의 신앙 고백인 샤하다와 쿠란 구절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간략한 형태에서부터 대담하고 독창적인 형식에 이르기까지 비문에 쓰인 다양한 아랍어 서체들은 묘비를 하나의 예술품으로 승화시킵니다.

Tombstones from al-Ma'la Cemetery

Hundreds of tombstones from the now-destroyed al-Ma'la cemetery, located in the northern part of Mecca, tell stories about the lives and religious conviction of the Muslims between the 9th and 10th century CE. The tombstones were made of irregular blocks of basalt. With few early exceptions, all of the tombstones contain the name of the deceased and information about their ancestry. The inscriptions always begin with the words of a prayer followed by the Shahada, the Muslim declaration of faith, and end with a specific passage from the Holy Qur'an. These tombstones show an exceptional quality of various calligraphic styles.

아브드 알아지즈 알술타니의 아들, 유수프의 아들, 아브드
알아지즈의 묘비

Tombstone of Abd al-Aziz, son of Yusuf, son of Abd al-Aziz
al-Sultani

메카

1440 년 11 월 2 일 | 현무암

까스르키잠박물관 소장

Qasr Khizam Museum, 350

상인 니잠 알딘 마흐무드 알술탄 알카이라니의 묘비

Tombstone of the Merchant Nizam al-Din Mahmud al-Sultan al-Kaylani

메카

1548 년 8 월 | 현무암

까스르키잠박물관 소장

Qasr Khizam Museum, 401A/B

묘비의 내용은 페르시아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부유한 상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묘비는 재사용되었고, 반대편에는 1129 년 메카에서 죽은 사람의 비문이 있습니다.

The large script on this tombstone refers to a rich merchant who might have come from Persia. The stone was reused and the reverse side bears an inscription to the son of the Amir of Makkah, who died in 1129.

아라파 알마끼의 아들, 술라이만의 아들, 알리의 아들, 압달라의 아들, 샤이크 아피프 알라의 묘비

Tombstone of Shaykh Afif Allah, son of Abdallah, son of Ali, son of Sulayman, son of Arafa, al-Makki

메카

1365~66 년 | 현무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602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신을 믿는 그가 알라에게 돌아갑니다"

이브라힘 알타바리의 아들, 무함마드의 아들, 샤이크 아부
바크르의 묘비

Tombstone of Shaykh Abu Bakr, son of Muhammad, son of
Ibrahim al-Tabari

메카

1217 년 3 월 18 일 | 현무암

까스르키잠박물관 소장

Qasr Khizam Museum, 453

무덤의 주인공은 이란의 북서부 타바리스탄(Tabaristan) 출신입니다. 그는 메카에서 이슬람 율법학자이자 판사였습니다. 원형의 묘비는 매우 드문 형태입니다.

This example is inscribed with the name of the judge Shaykh Abu Bakr, a native of Tabaristan, a region along the southern coast of the Caspian Sea.

파끼흐 자말 알딘 아비 압달라 무함마드의 묘비

Tombstone of the Faqih Jamal al-Din Abi Abdallah
Muhammad

메카

1196 년 4 월 11 일 | 현무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666

이슬람 율법학자의 묘비로 서체와 장식 구성으로 볼 때, 당시 메카에서 유명한 석공이었던 아비 하라미 알-마키(Abi Harami al-Makki) 가문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This tombstone of a North African scholar of law is also attributable to the family of Abi Harami al-Makki, a well-known stonemason from Makkah.

압달라의 아들, 유수프의 묘비

Tombstone of Yusuf, son of Abdallah

메카

1199 년 6 월 2 일 | 현무암

까스르키잠박물관 소장

Qasr Khizam Museum, 411A/B

“여기에 가족들이 사랑하는 젊은이, 압달라의 아들 유수프 (Yusuf)가 잠들다. 이슬람력 595 년 샤반월(Sha'ban, 6 월) 5 일 수요일에 죽다.”

“Here lies the youth taken from his family and his beloveds, Yusuf, son of Abdallah. Died on Wednesday, fifth day of the month of Sha'ban in the year 595.”

아버지와 딸의 묘비

Tombstone of a father and his daughter

메카

1118 년 4 월 | 현무암

까스르키잠박물관 소장

Qasr Khizam Museum, 251 / B-A

묘비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이곳은 이슬람력 511 년에 죽은 야히야(Yahya)의 아들인 라지(Rajih)와 그와 함께 묻힌 딸 무니파(Munifa)의 무덤이다. 신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This is the grave of Rajih, son of Yahya and buried with him was his daughter Munifa, died in the year 511, may God grant them His mercy..."

아샤즈 알 이디의 아들, 까심의 아들, 자파르의 아들, 아불리자의 아들, 알리의 묘비

Tombstone of Ali, son of Abu'l-Riza, son of Ja'far, son of al-Qasim, son of al-Ashaj al-Idi

메카

1085 년 10 월 13 일 | 현무암

메카박물관

Museum of Antiquities and Heritage in Mecca, 70

이 묘비에는 자세한 사망 일자가 적혀 있습니다. 11 세기 이후부터 사망일자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묘비들이 많아졌습니다.

The detailed inscription includes the exact date of death, a practice that became more common after the 11th century.

압바스의 아들 무함마드의 묘비

Tombstone of Muhammad, son of al-Abbas

메카

9 세기 초~10 세기 후 | 현무암

까스르키잠박물관 소장

Qasr Khizam Museum, 194

이 묘비의 상단에 “이브라힘이 새기다”라는 작은 글씨가 있습니다. 메카에 있는 묘비 중에 서예가의 서명이 있는 것은 매우 희귀합니다.

Following the curve of the arch on the right, he added “written by Ibrahim” in small letters. Such a signature is exceptional among the early Makkan tombstones.

살람의 아들, 무사의 딸, 하사의 묘비

Tombstone of Hasa, daughter of Musa, son of Salam

메카

9 세기 | 현무암

킹파흐드국립도서관 소장

King Fahd National Library, 314879

간결한 내용의 이 묘비는 처음 '바스말라(자비심 깊고 자애로운 신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인사, 죽은 사람의 이름에 이어 마지막 감탄사 (아멘! 두 세계의 주인이여!)로 끝을 맺습니다. 글씨체는 단순하지만 문자 'n'으로 발음되는 글자를 고리 모양으로 독특하게 썼습니다.

The simple elegance of this inscription is emphasized by the rather pronounced ring-shaped forms of the letter n (nun).

압달라의 어머니의 묘비

Tombstone of Umm Abdallah

메카

9 세기 | 현무암

킹파흐드국립도서관 소장

King Fahd National Library, 314716

비문에 따르면 죽은 사람은 “압달라의 어머니, 아자르의 아이의 어머니”로 나타납니다. 이 이름없는 여인은 아자르의 하인이며, 그의 아이를 가짐으로써 새로운 신분을 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The deceased is identified as “the mother of Abdallah and mother of the child of Azhar.” This suggests the anonymous female was possibly a servant who bore her master, Azhar, a child and acquired a new social status as a result.

알라의 아들, 압달 자바르의 딸, 갈리야의 묘비

Tombstone of al-Ghaliya, daughter of Abd al-Jabbar, son of
al-Ala

메카

9세기 | 현무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497/A-B

압달라의 아들, 압바스의 묘비

Tombstone of Abbas, son of Abdallah

메카

9 세기 | 현무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451

비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인 나시흐(Nasih)의 아들, 무함마드(Muhammad)의 아들, 압둘라 (Abdullah)의 아들, 압바스(Abbas)가 불길에서 벗어나기를!

“Make Abbas son of Abdullah son of Muhammad son of Nasih, an asset to his parents, escape from the fire!”

암 알파리시의 아들, 이사의 딸, 라흐만의 어머니의 묘비

Tombstone of umm Abd al-Rahman, daughter of Isa, son of
Amr al-Farisi

메카

9 세기 | 현무암

까스르키잠박물관 소장

Qasr Khizam Museum, 155

이름 없는 여인의 묘비입니다. 오직 그녀의 아들이나 아버
니의 이름으로만 그녀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파리시(al-Farisi)
라는 이름은 이란 남서부 파르스(Fars) 출신을 뜻 하는 것으
로, 그녀가 태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he inscription refers to an anonymous woman. She is only
identified as a mother and by her father's ancestry. Her
nisba(name of belonging) "Al-Farisi" indicates her iranian
birth.

나우팔 알하시미의 아들, 무함마드의 아들, 아불까심 나우팔
의 묘비

Tombstone of Abu'l-Qasim Nawfal, son of Muhammad, son
of Nawfal al-Hashimi

9 세기 | 현무암

까스르키잠박물관 소장

Qasr Khizam Museum, 457

화려하고 정교한 서체를 보여주는 이 묘비의 주인공은 예언
자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친척인 알리의 후손, 하심(al-
Hashimi) 가문의 사람입니다.

This fine tombstone was made for a member of the
Hashemite tribe, which descended from the Prophet
Mohammed through Ali, his cousin and son-in-law.

아마드의 묘비

Tombstone of Ahmad

메카

10 세기 | 현무암

까스르키잠박물관 소장

Qasr Khizam Museum, 467

“누(Nuh)의 아들, 자파르(Ja’far)의 아들, 무함마드
(Muhammad) 의 아들, 아마드(Ahmad), 부모 곁에 잠들다.”

“Place Ahmad, son of Muhammad, son of Ja’far, son of Nuh,
by his parents.”

아마드의 딸, 아스마의 묘비

Tombstone of Asma, daughter of Ahmad

메카

10 세기 | 현무암

까스르키잠박물관 소장

Qasr Khizam Museum, 260

죽은 사람은 아브드 알무탈리브(Abd al-Muttalib)의 아들, 압바스(al-Abbas)의 아들, 압달라(Abdallah)의 아들, 알리(Ali)의 아들, 술레이만(Sulayman)의 아들, 자파르(Ja'far)의 아들, 다우드(Da'ud)의 아들, 알리(Ali)의 아들, 아마드(Ahmad)의 딸 아스마(Asma')입니다. 그의 가계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삼촌이자 압바스 칼리파의 선조인 압바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The individual's lineage goes back to al-Abbas, the uncle of the Prophet Mohammed and ancestors of the Abbasid caliphs.

까심의 딸, 루까이야의 묘비

Tombstone of Ruqayya, daughter of al-Qasim

메카

9 세기 후 또는 10 세기 초 | 현무암

까스르키잠박물관 소장

Qasr Khizam Museum, 260

모두 9 대의 이름이 적혀있는 이 묘비는 죽은 이가 예언자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 알리(Ali)의 후손이며 까심의 딸임을 알려줍니다. 루까이야라는 이름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딸의 이름을 본딴 것입니다. 예언자의 많은 후손들이 메카에 살았고 그들은 말라 묘지에 묻혔습니다.

This relatively simple tombstone belonged to a high-born female named after the daughter of the Prophet Mohammed. The lineage of the deceased indicates she was a descendant of Ali, the son -in-law and cousin of the Prophet. Many of his descendants lived in Makkah and were buried in the Ma'la cemetery.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탄생

18 세기 이후 사우드 가문은 오스만 제국의 억압에 대항해 아라비아를 통일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1902 년 압둘아지즈 왕은 오스만 제국의 치하에 있던 리야드를 탈환하고 1932 년에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을 건국했습니다. 압둘아지즈의 왕의 유품과 19 세기의 각종 공예품, 무기류 등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보여줍니다.

The Birth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Al-Saud's struggle for unification against Ottoman imperialism dates back to the mid-18th-century. King Abdulaziz reconquered Riyadh in 1902 and set about uniting the country. In 1932, King Abdulaziz unified the regions and proclaimed the birth of the modern Kingdom of Saudi Arabia. The personal objects of King Abdulaziz and the relics in 19th century of kingdom, including crafts and weapons, reflect the history and cultural tradition of Saudi Arabia.

깃발

Flag

20 세기 | 식물

킹압둘아지즈연구아카이브재단 소장

King Abdulaziz Foundation for Research and Archives, K A/1

압둘아지즈 왕(1876~1953)의 부대가 이동 중에 낙타에 꽂
았던 깃발입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의 원형인 이
깃발에는 아랍어로 무슬림의 신앙 선언이 적혀있고, 그 아
래에 칼이 그려져 있습니다.

This flag belonged to the founder of the Kingdom of HM
King Abdulaziz (1876–1953). It is inscribed with the Shahada
(The declaration of Faith).

압둘아지즈 왕의 옷

King Abdulaziz's Cloak

20 세기 | 면

킹압둘아지즈연구아카이브재단 소장

King Abdulaziz Foundation for Research and Archives, 109

압둘아지즈 왕의 쿠란과 상자

King Abdulaziz's Holy Qur'an and Box

20 세기 | 종이에 잉크와 금, 금속

킹압둘아지즈연구아카이브재단 소장

King Abdulaziz Foundation for Research and Archives, K
A/2-3

매 대와 뿔개, 사냥 장갑

Falcon stand for King Abdulaziz

20 세기 | 가죽, 나무와 금속

킹압둘아지즈연구아카이브재단 소장

King Abdulaziz Foundation for Research and Archives, K
A/4-6

압둘아지즈 왕은 매사냥을 즐겼습니다. 매사냥은 사막 지역
부족들의 전통적인 생계 수단이었으나 점차 왕족, 부호들의
고급 취미가 되었습니다.

The falcon stand and glove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the art of falconry in Arabian culture.

압둘아지즈 왕의 검

King Abdulaziz's Sword

20 세기 | 금과 은

킹압둘아지즈연구아카이브재단 소장

King Abdulaziz Foundation for Research and Archives, 442

향로

Incense burner

리야드

19 세기 | 나무, 금속과 유리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464/2, 590/12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전

Early Saudi coins

19 세기 | 금속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9/1, 19/2, 19/3, 19/4, 19/5

사우드 제 2 왕국 시기(1818~1891)에 사용했던 동전으로 각각 이슬람력 1244 년(1828), 1254 년(1838), 1256 년 (1840)에 발행되었습니다.

절구와 막자

Mortar and Pestle

리야드

19 세기 | 대리석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660/2, 891/2

창문 덮개

Window Shutter

마즈마

19 세기 | 나무와 금속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2016-03

수저

Spoon

리야드

19 세기 | 구리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892/2

달라(커피 주전자)

Dallah(coffee pot)

리야드

19 세기 | 구리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890/2, 889/2

커피콩 냉각기

Coffee bean cooler

리야드

19 세기 | 나무, 금속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526/2

청동 절구와 막자

Bronze Mortar & Two Pestles

동부 주

압바스 왕조 | 금속

담맘박물관 소장

Dammam Museum, DM288/1-2-3

나무 첨필

Wooden stylus

리야드

19 세기 | 나무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446/8

나무 칠판

Wooden writing board

리야드

19 세기 | 나무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34/8

펜대, 잉크통

Pen holder, ink well

리야드

19 세기 | 구리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445/8

목걸이

Traditional necklace

리야드

19 세기 | 구리, 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943/14

허리띠

Traditional belt

리야드

19 세기 | 구리, 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944/14

눈 화장 용기

Decorative kohl pot

리야드

19 세기 | 구리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408/3

발찌

Anklets

리야드

19 세기 | 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1945/14, 1922/14, 1946/14

목걸이 펜던트

Decorative pendant from a necklace

리야드

19 세기 | 구리, 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2105

소총

Rifles

리야드

19 세기 | 나무, 금속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301/3, 2492

권총

Pistol

리야드

19 세기 | 구리, 은, 나무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2337

포탄

Cannonball

리야드

19 세기 | 철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RH 388/3

도가니

Lead smelter

리야드

19 세기 | 철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518/3

총알 거꾸집

Casting mold

리야드

19 세기 | 구리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400/3

의례용 단검

Traditional ceremonial daggers

리야드

19 세기 | 구리, 은, 가죽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2511, 602/3

화약통

Gunpowder holder

리야드

19 세기 | 구리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602/3

의례용 단검

Traditional ceremonial dagger

리야드

19 세기 | 구리, 은, 가죽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613/3

문

Door

나즈드

19 세기 말~20 세기 초 | 나무에 채색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

National Museum in Riyadh, 2108

나즈드 건축 양식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의 교외 북서쪽에 있는 디리야(ad-Dir'iyah) 역사지구에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1744 년부터 1818 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제 1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나무에 문양을 넣고 색을 칠한 이 문에는 나즈드 지역의 전통 예술 양식이 담겨 있습니다.

Lightly incised with colors burned into the wood, this door represents an artistic style that developed in the Najd region of central Arabia. Many examples of Najd architecture are preserved in ad-Dir'iyah, a town located on the northwestern outskirts of the Saudi capital of Riyadh. It served as the capital of the first Saudi state from 1744 to 1818.

꽃 장식이 있는 나무 문

Two shutters wooden door with floral decoration

나즈드

1706 년 | 나무, 금속

담맘박물관 소장

Dammam Museum, 11/17/10

꽃과 기하무늬가 있는 나무 문

Two shutters wooden door with floral and geometric decorations

하사

1761 년 | 나무, 금속

담맘박물관 소장

Dammam Museum, 294-13

전시를 마치며

아라비아의 길을 따라가는 이번 전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더듬어보는 가슴 벅찬 여정이었습니다. 선사시대의 인류가 걸었던 그 길은 새로운 문명이 만나는 통로가 되었고, 교역과 순례의 길이 되어 수천 년 동안 지역과 시대를 연결했습니다. 우리는 이 여정에서 번영과 영광의 흔적을 보기도 했지만, 삶의 소소한 일상과 염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여정을 마치며 다시금 아라비아를 떠올려 봅니다. 우리에게 열사의 땅, 아라비아는 1970년대 이후 수많은 근로자들의 땀과 열정이 담겨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편지와 사진으로 전한 아라비아는 그저 낯선 곳이었지만, 이번 전시가 그 아라비아를 온전히 만나보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Closing the Exhibition

The Roads of Arabia has allowed us to take part in a breathtaking journey tracing the long history and rich culture of Saudi Arabia. The roads walked by prehistoric humans became the crossroads of cultures and routes for trade and pilgrimage that connected regions and eras across millennia. Along this journey, we witnessed traces of the prosperity of a glorious past and scenes of the everyday lives and dreams of ordinary people.

Upon completing the journey, we conceive Arabia anew. Considered mainly a land of burning sand, it is also where many Korean workers have passionately toiled since the 1970s. The region described in their letters and photos might have seemed simply a strange place far away. It is hoped that *The Roads of Arabia* provides an opportunity to see Arabia in its entirety.